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프랑스어 완결상 연구

- 술어 명사 구문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어학전공

지광해

문학석사학위논문

프랑스어 완결상 연구

- 술어 명사 구문을 중심으로

L’étude sur la perfectivité du français

- autour des phrases à nom prédicatif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어학전공

지광해

프랑스어 완결상 연구

- 술어 명사 구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성 헌

이 논문을 불어불문학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어학전공

지 광 해

지광해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7월

위 원 장 장 재 성 (인)

부 위 원 장 최 윤 선 (인)

위 원 이 성 헌 (인)

국문초록

이 논문은 프랑스어 술어 명사 구문을 중심으로 완결상(perfectivité) 해석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밝히고 이 요소들의 결합 양상의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쟁점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완결상이 어휘 층위에서 그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종결상(télicité)과 문법 층위에서 시제를 통해 결정되는 완료상(aspect accompli)을 포괄하는 상임을 밝힌다.

그런 다음 이러한 완결상이 술어 명사 구문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발현됨을 밝힌다. 즉, 술어 명사의 의미와 상, 술어 명사의 비한정성,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 시제 및 상 기능동사가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해석에 관여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요소들이 어떤 방식의 결합을 통해서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해석을 야기하는지 밝힌다. 즉, 술어 명사 유형([완수], [종료], [활동]) 각각에 대해서 해당 유형의 술어 명사들이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완결상 결정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인다. 완수에서는 세 가지 양상($ACC_QD.N_{pred}_arg_{.obj.dél1}$, $ACC_QD.N_{pred}_arg_{.obj.dél2}$, $ACC_ID.N_{pred}$), 종료에서는 네 가지 양상($ACH_p_QD.N_{pred}_arg_{.obj.dél}$, $ACH_p_ID.N_{pred}$, $ACH_d_QD.N_{pred}_arg_{.obj.dél}$, $ACH_d_ID.N_{pred}$), 활동에서는 두 가지 양상($ACT_QD.N_{pred}_arg_{.obj}$, $ACT_ID.N_{pred}$)이 문장의 완결상 해석을 야기함을 보인다.

주요어 : 완결상, 술어 명사 구문, 완수, 종료, 활동, 비한정성

학번 : 2014-22242

목 차

서 론 1

본 론 3

1. 상(aspect) 연구 쟁점 3

1.1. 상 연구의 두 기원 3

1.1.1. 슬라브어 동사와 상 3

1.1.2. 키네시스와 에네르게이아 5

1.2. 상 연구의 두 흐름 7

1.2.1. 술어 의미와 상 분류 7

1.2.2. 문장 내 요소들을 고려한 상 분류 9

2. 완결상: 종결상과 완료상의 실현 11

2.1. 상 유형의 다양성 12

2.1.1. 종결상(télicité) 13

2.1.1.1. [완수]와 [종료] 그리고 종결상 13

2.1.1.2. 도달점을 부여하는 문장 내 요소 14

2.1.2. 완료상(aspect accompli) 16

2.1.2.1. 실현된 총체로서의 사행 16

2.1.2.2. 완료상 속성 17

2.1.2.3. 완료상 발현 환경 18

2.2. 완결상 20

2.2.1. 완결상 속성 20

2.2.2. 완결상 발현 환경 21

3. 술어 명사 구문과 완결상 결정 요소 24

3.1. 술어 명사 구문 24

3.1.1. 술어 명사와 기능동사 24

3.1.2. 술어 명사 구문 특성 25

3.2.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결정 요소 28

3.2.1. 술어 명사의 상 28

3.2.1.1. 술어 명사의 의미와 상 유형 28

3.2.1.2. [완수] 술어 명사와 완결상 30

3.2.1.3. [종료] 술어 명사와 완결상 33

3.2.1.4. [활동] 술어 명사와 완결상 35

3.2.2. 술어 명사의 비한정성 38

3.2.2.1. 한정성 vs. 비한정성 38

3.2.2.2. 비한정성과 완결상 40

3.2.3. 술어 명사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 41

3.2.3.1. 획정성 41

3.2.3.2. 목적어 논항 획정성과 완결상 42

3.2.4. 술어 명사 구문의 시제 43

3.2.5. 상 기능동사 45

4. 술어 명사 구문과 완결상 요소들의 결합 양상 48

4.1. 술어 명사가 [완수]인 경우 48

4.1.1. ACC_QD.N_{pred}_$arg_{.obj.dél1}$ 유형 48

4.1.2. ACC_QD.N_{pred}_$arg_{.obj.dél2}$ 유형 50

4.1.3. ACC_ID.N_{pred} 유형 51

4.2. 술어 명사가 [종료]인 경우 53

4.2.1. ACH_p_QD.N_{pred}_$arg_{.obj.dél}$ 유형 54

4.2.2. ACHp_ID.N_{pred} 유형 55

4.2.3. ACH_d_QD.N_{pred}_$arg_{.obj.dél}$ 유형 57

4.2.4. ACH_d_ID.N_{pred} 유형 58

4.3. 술어 명사가 [활동]인 경우 60

4.3.1. ACT_QD.N_{pred}_$arg_{.obj}$ 유형 60

4.3.2. ACT_ID.N_{pred} 유형 61

결 론 64

참고문헌 65

서 론

이 논문의 목표는 문장에서 결정되는 상(aspect)인 완결상(perfectivité)을 정의하고 이러한 완결상이 술어 명사 구문에서 어떤 조건 하에 나타나는 지를 분류하는 것이다.

상이란 언어를 통해 지칭할 수 있는 사건의 내적 시간, 전개 양상에 관련된 의미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한 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들 중 우리는 가장 통합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Comrie(1976)와 Haas(2009)의 정의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Comrie (1976 : 3)에 따르면 상은 언어로 표현되는 상황의 "내적 시간성"을 드러낸다.

> *... aspects are different ways of view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a situation*[1]

Haas (2009 : 16) 역시 상이란 상황[2]의 "전개에 관한 화자의 관점"과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구간"을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 *Notionnellement, l'aspect est donc le point de vue exprimé par le locuteur sur le déroulement de la situation, en cela, il permet d'une part de donner des informations sur les propriétés intrinsèques de la situation (sa durée, sa délimitation, son dynamisme ou sa stativité), et, de l'autre, de déterminer quelle est la phase que le locuteur a choisi de valoriser en décrivant la situation (l'accent peut être mis sur le commencement, la phase médiane, ou la fin).*[3]

---

[1] 상이란 한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을 조망하는 다양한 방식이다. (본인 번역)

[2] 위 정의들에서 상은 '상황'(situation)에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상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층위를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층위를 선택할 것이다.

[3] 개념적으로 상이란 상황의 진행에 대해 화자가 표현하는 관점이며, 이 점에 있어 상은 한편으로 (상황의 지속, 한정, 동적성 및 정태성와 같은) 상황의 본원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을 기술하며 화자가 강조하기로 선택한 구간이 무엇인지 획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시작이나 중간 혹은 도달점에 강세가 놓일 수 있다). (본인 번역)

이렇게 문장이 나타내는 사행의 시간적 특성과 관련된 상 연구의 핵심 중 하나는 언어가 표현하는 사행의 도달점(fin)이다. 도달점은 사행의 시작이나 진행과 달리 한 사행이 이를 전제하는지 여부가 상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사행에 전제된 도달점 혹은 시간 한정을 통해 사행에 주어진 도달점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사행 전체가 현동화(actualisation)되는지 혹은 사행의 일부만이 현동화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제가 사행을 표상하는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달점의 전제와 실현이 동사가 중심이 되는 문장 안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술어는 동사 이외에도 명사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술어 명사 구문에서도 이러한 상 분류의 핵심인 도달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사 구문에서와 달리 술어 명사는 동사와 달리 통사적으로 문장의 핵 역할을 하지 못 한다. 술어 명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술어의 의미 기능과 문법 기능의 분리는 우리는 여러 문장 요소들이 어떻게 상 유형의 핵심인 도달점의 전제와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구별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1장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장에서는 완결상이란 종결상과 완료상을 포괄하는 상임을 보일 것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완결상 해석을 받기 위해 어떤 결정 요소들이 나타나는지를 개별적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술어 명사 부류를 중심으로 3장에서 드러낸 요소들이 술어 명사 구문에서 어떠한 결합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한다.

본 론

1. 상(aspect) 연구 쟁점

이 장에서는 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러한 상 연구들이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술어 명사 (구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조망할 것이다.

1.1. 상 연구의 두 기원

우리가 다루는 상과 상의 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 연구의 기원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상 연구의 기원은 연구 방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슬라브어의 동사 형태론과 관련된 연구이다.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에 따라 종결이 내재된 사건과 종결이 내재되지 않은 사건을 구별한 연구다.[4]

1.1.1. 슬라브어 동사와 상

슬라브어는 동사와 결합하는 접사를 통해 동사가 표현하는 한 사건의 양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접사를 통해 사건의 도달점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완료상(aspect accompli) 혹은 미완료상(aspect inaccompli)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슬라브어의 특징이다. 여기서 완료란 “도달 한계점 혹은 목표 한계점의 존재”를 표상하며 미완료는 “행위 자체, 출현, 반복”을 표상한다.[5] 슬라브어 상 연구는 (미)완료 의미에 한정되어 있다.

완료상, 미완료상 외에도 슬라브어 접사는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을

---

[4] 슬라브어 동사 형태론 연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Haas(2009)와 Rothstein(2008)을 참조.

[5] Haas (2009 : 9)

표상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Agrell(1908)은 이를 동작류(Aktionsart)[6]라고 명명하고 이를 (미)완료상과 구분했다. 이처럼 접사를 통해 (미)완료상과 동작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슬라브어와 같이 상이 어휘 층위에서 표현되는 경우에도 "상의 범주를 획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7].

프랑스어에서는 슬라브어가 접사를 통해 모든 동사의 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동사에 적용되는 시제라는 범주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상을 연구했다. Guillaume(1929)은 슬라브어 완료상이 프랑스어에서는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신 프랑스어 동사의 시제 (단순 시제, 복합 시제, 중복합 시제)에 따라 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uillaume은 tensif상과 extensif상을 구분했는데, 이때 tensif란 "동사를 통해 지칭되는 진행 중인 상황의 모습"이며 extensif는 "사건의 결과(séquelle)"를 표현한다.[8] 하지만 Wilmet(1980, 1991)는 프랑스어 상과 슬라브어 상의 공통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프랑스어 시제를 통해 (미)완료에 상응하는 상인 sécant과 global을 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9]

이러한 연구를 통해 프랑스어는 슬라브어와 달리 시제가 사건을 시간에 등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의 표상 방식을 결정한다는 사실과 상은 모든 술어에 적용될 수 있는 문법 범주라는

---

[6] 프랑스어에서는 mode d'action 또는 asepct lexical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Haas (2009 : 22) 참조. 본 논문에서는 상이 문장 층위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상에 기여하는 각 요소들이 어떤 층위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분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이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접사를 통해 드러나는 동작류가 술어의 일부라는 점에서, 술어에서 비롯되는 상 의미를 모두 어휘상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동작류'라는 번역은 고영근(2006)을 참조했다.

[7] Ibid., p. 11.

[8] Haas (2009 : 14)

[9] Ibid., p. 19 참조. 반과거는 사건의 일부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sécant(inaccompli)에 해당하며 단순 과거의 경우 과거에 위치한 사건 전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global 에 해당한다. Wilmet(1980)의 global/sécant 이외에도 Arrivé(1986)의 achevé/inachevé, Leeman-Bouix(1994)의 accompli/non-accompli 등의 용어로 동일한 개념이 연구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완료상을 지칭할 때 (aspect) accompli 와 inaccompli 로 구분하기로 한다.

사실이 밝혀졌다. Coseriu (1980 : 15)는 슬라브어와 달리 시간 등재와 사건 표상 방식을 결정하는 프랑스어 시제에 대해 상이 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10]

위와 유사한 관점에서 Comrie(1976)는 문법을 통해 표현되는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을 구분했다. 사건 전체를 지칭하는 상을 완료상으로, 시작, 진행, 종결과 같은 사건의 특정 부분이나 반복, 습관과 같은 사건의 출현 방식을 드러내는 상을 미완료상으로 간주했다.[11]

1.1.2. 키네시스와 에네르게이아

또 다른 상 연구의 기원은 사건 유형에 따른 동사 분류의 기초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키네시스(kinesis)와 에네르게이아(energia)이다. 키네시스란 "본원적으로 미완성이며 도달점(end)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 종결(telic)로 분류되는 행위"를 뜻하며 에네르게이아는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으며 비종결(atelic)로 분류되는 행위"를 뜻한다.[12]

키네시스에 속하는 동사로 construire (une maison)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동사들은 본원적인 의미 안에 사건이 끝나는 도달점이

---

[10] *Il faut tenir compte du fait qu'une catégorie grammaticale peut apparaître combinée avec une autre catégorie. ... Pour ce qui est de la catégorie d'aspect, celle-ci se présente presque toujours intimement combinée avec la catégorie de temps.* (문법 범주는 다른 범주와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상의 경우 언제나 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11] 하지만 이렇게 상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하나의 층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 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의 층위에 따라 어휘상(aspect lexical)과 문법상(aspect grammatical)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이 나타나는 층위에 따라 어휘상과 문법상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동사 dormir가 접두사 en-과 재귀 접어대명사 se와 결합하여 시작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s'endormir)와 dormir가 commencer à와 결합하여 시작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 똑같은 시작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두 요소는 서로 같은 층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 같은 상을 실현하는 두 요소를 층위 차이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장 층위의 상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상에 기여하는 요소들의 층위를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12] Rothstein (2008 : 2)

존재한다. 동사 construire (une maison)의 경우 목적어 논항인 집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에네르게이아에 속하는 동사의 경우에는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사 regarder (la télévision)이 여기에 속하며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동사가 가리키는 사건이 성립하며 키네시스와 달리 사건의 성립을 위해 특정한 도달 지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사를 분류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Vendler(1957, 1967)가 있다. Vendler는 위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네 가지 유형의 사건을 구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동사를 분류했다. Vendler(1957)에 따르면 사건은 활동, 상태, 완수, 종료로 나뉘며 이를 이용해 동사를 분류했다.[13]

동사가 가진 종결상 여부는 construire와 같이 본원적으로 도달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가리키는 동사와 결합하는 <en x temps>[14]를 통해 도달점을 가진 동사와 그렇지 않은 동사를 구별한다.[15] 도달점을 가지지 않은 동사들은 이와 반대로 <pendant x temps>[16]과 결합할 수 있다.

(1) a. Il est triste [상태]
b. elle est arrivée chez le docteur à 14 h [종료]
c. Il a construit une maison en deux mois [완수]
d. Il a travaillé pour cette entreprise pendant cinq ans [활동]

동사와 결합하는 여러 요소들이 동사의 의미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장에서 살펴본 두 가지 연구 기원에서 언급된 완료상이나 종결상은 문장이 가리키는 사건 유형의 자질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Vendler(1957)가 정립한 사건 유형을 중심으로 상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

[13] activity, state, accomplishment, achievement. (Vendler, 1957) 프랑스어에서는 activité, état, accomplissement, achèvement 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14] Vendler(1957)가 제시한 <in x time>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 시간 부사이다.

[15]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영어 예문을 사용하지 않고 상응하는 프랑스어 예문을 사용하기로 한다.

[16] Vendler(1957)의 <for x time>에 상응하는 프랑스어 시간 부사이다.

1.2. 상 연구의 두 흐름

사건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 상 연구들은 동사를 분류하는 연구에서 출발하여 상이 문장 층위에서 결정된다는 연구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프랑스어에서 상은 문장에 관련된 특성임을 보일 것이다.

1.2.1. 술어 의미와 상 분류

Vendler(1957, 1967)의 경우 상에 따른 동사의 분류를 위해 언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세 종류의 자질을 상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유형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동사를 [상태], [활동], [완수], [종료]로 분류했다.

Vendler를 비롯한 동사 분류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와 상태를 구분하는 동태성(dynamicité)와 정태성(stativité), 행위의 지속성(durativité)과 순간성(ponctualité) 그리고 행위가 가진 자연적 도달점 유무를 어휘의 본원적 의미로 본다.

이러한 본원적 의미들은 특정 시간 부사와의 결합, 진행상 결합을 통해 드러난다. 먼저 [상태](état)는 나머지 세 가지 상과 구별되며 시간 부사나 진행상과 전혀 결합하지 못 한다.

(2) a. Il est intelligent (*en deux mois + *pendant deux mois).
b. Il est (*en train d')être intelligent.[17]

[활동](activité)의 경우 지속성을 가지지만 동사가 지칭하는 행위의 도달점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을 지칭하는 <pendant x temps>과 결합하며 진행상과 결합할 수 있다.

(3) a. Il a travaillé pendant deux ans dans cette entreprise.
b. Il est en train de travailler.

[완수](accomplissement)와 [종료](achèvement)는 이러한 상에

[17] 이 논문에서 문장의 해석 가능성의 정도를 표시함에 있어 [*]는 해석 불가능을, [?]는 모호한 해석을, [??]는 특수한 문맥이 주어지는 경우에만 해석 가능함을 의미한다.

해당하는 사건들이 모두 사건이 완성되기 위한 도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결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en x temps>과 결합한다. 하지만 [완수]와 [종료]는 각각 지속성과 순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 결합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4) a. Elle a construit une maison en deux mois. [완수]
b. Il est arrivé chez elle (en deux heures + à 14 heures). [종료]
c. Elle est en train de construire une maison. [완수]
d. *Il est en train d'arriver chez elle. [종료]

위 예시들을 통해 일정 시간의 지속을 통해 사건의 도달점에 도달하는 [완수]와 도달점은 없으나 지속 의미만을 가진 [활동]이 이러한 진행상과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태]나 특정 순간에 사건이 성립되는 [종료]는 지속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속성과 순간성을 자질로 인정한 Vendler(1957)와 달리 Kenny(1963)의 경우 지속성을 자질로 인정하지 않고 [완수]와 [종료]를 수행(performance)이라는 하나의 상으로 간주했다.

1.2.2. 문장 내 요소들을 고려한 상 분류

하지만 Dowty(1979)와 같은 연구들은 동사와 결합하는 요소의 성질에 따라, 특히 논항의 한정 여부나 활동 동사와 결합하는 방향 전치사 및 수량 표현 등을 통해 동사가 여러 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18]

(5) a. Jean a marché (pendant deux heures + *en deux heures).
b. Jean a marché jusqu'au marché (*pendant deux heure + en deux heures).
c. Marie a écrit une lettre (*pendant dix minutes + en dix minutes).
d. Marie a écrit des lettres (pendant dix minutes + *en dix minutes).

(5)는 한 상 부류에 속해있던 동사들이 문장 내 요소들에 따라 다른 부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들이다. (5b)의 경우 [활동]이었던 marcher가 목적지를 특정하는 표현과 결합하게 되면 도달점을 부여받아 [완수]의 의미를 받는다. (5d)의 경우 [완수]였던 écrire (une lettre)가 복수 부정관사로 인해 개별성을 갖지 않은 목적어 논항과 결합하면서 도달점을 상실하고 [활동]의 의미를 받는다.

Dowty(1979)는 이렇게 동사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종결상에 대해 미완료 모순(Imperfective paradox)[19] 테스트를 도입하여 한 동사가 여러 상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6) a. Il parlait = Il a parlé
b. Elle écrivait une lettre ≠ Elle a écrit une lettre

---

[18] François & Gosselin (1991 : 36) 역시 Vendler-Kenny 식 분류가 « 동사의 논항 환경에 따라 가능한 부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19] 미완료 모순 테스트는 종결상을 가진 동사(구)가 반과거와 같은 미완료 시제로 나타날 때는 도달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술어가 가리키는 사행이 완료를 함의하지 않지만 활동, 상태에 해당하는 동사가 반과거로 나타날 때는 전제된 도달점이 없기 때문에 완료를 함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테스트이다. 이를 통해 동사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종결상의 도달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c. Il marchait jusqu'au marché ≠ Il a marché jusqu'au marché
d. Elle écrivait des lettres = Elle a écrit des lettres

(6a)는 [활동]에 속하는 동사 parler가 반과거로 나타날 경우 시작되는 순간 이미 이루어져 지속성만을 갖는 사행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이 과거에 실현되었을 경우 이것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 반면 [완수]에 속하는 (6b)의 동사 écrire는 전제된 도달점에 달해야 하기 때문에 사행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완료를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과거가 사행의 실현을 함의하지 못 한다.

Dowty(1979)가 상 유형을 동사구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Vendler(1957) 이후 상 부류에 따른 동사(구) 분류 연구들은 동사의 본원적 의미뿐 아니라 동사가 취하는 논항과 문장 층위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여러 요소들이 상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더 이상 동사만이 상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하게 되었다.

Mourelatos(1978)는 상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동사 의미, 동사 논항의 성질, 부사, 어휘상을 나타내는 조동사 및 시제를 들고 있다.[20]

(7) a. And then suddenly I knew!
b. Once Lisa understood what Henry's intentions were, she lost all interest in him
c. I'm understanding more about quantum mechanics as each day goes by (Mourelatos 1978 : 419)

(7a)는 순간성을 나타내는 부사를 통해 상태 동사를 상태의 변화로 해석되게끔 해주며 상태가 일종의 도달점을 가지게 되어 [종료] 의미를 부과받는다. (7b) 역시 상태 동사에 해당하는 undertstand가 마찬가지로 순간성을 드러내주는 부사를 통해 '이해한 순간'이라는 의미가 되어 [종료] 의미를 부과받게 된다. (7c)의 경우에는 [상태]나 [종료]로 이해할 수 있는 동사 understand가 이번에는 진행상과 나타나며 완수로 해석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프랑스어 상을 연구한 Wilmet(1980, 1991) 역시 종결상 동사와

[20] Mourelatos (1978 : 421)

비종결상 동사의 구분이 “견고하지 않다”며 미완료 모순과 테스트를 통해 종결상을 가지는 동사(구)와 그렇지 않은 동사(구)를 구별했다. 이를 토대로 Wilmet(1991)는 동사의 본원적 의미를 비롯한 논항, 부사구, 조동사, 시제 등이 상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8) a. Pierre (commence à + est en train de) regarder/chasser le lièvre (implication ‘Pierre a regardé + chassé le lièvre)
b. Pierre (commence à + est en train de) fermer la porte/manger une pomme/écrire une lettre (n’impliquant ni ‘Pierre a fermé la porte + mangé une pomme’ ni ‘Pierre a écrit une lettre’)

(Wilmet 1991 : 213)

이와 더불어 Borillo(1991) 역시 Vendler의 상 유형을 받아들이되 여러 요소가 상 유형 결정에 참여한다고 지적했다.[21] 위 연구들은 대체로 한 동사가 여러 상 유형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합하는 요소에 따라 나타나는 상 유형을 강조했다.

Bach(1986)은 동사가 아닌 문장이 가리키는 사건을 중심으로 상 유형을 분류했다. 특히 상태와 활동은 사건의 모든 부분이 서로 동일한 균질성(homogénéité)[22]을 가지며 미완료 모순이 발생하는 사건이며 완수, 종료는 “단수, 복수 개체와 유사하며 한정된 과정(bounded processes)”[23]을 이루며 시작, 진행, 종결과 같이 내부 구조가 서로 구별되는 사건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선행 연구를 검토 했을 때, 문장이 지칭하는 상 유형은 개별 어휘가 아닌 개별 어휘가 문장에서 현동화 되어 다른 요소들과 결합했을 때 지칭하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2. 완결상: 종결상과 완료상의 실현

---

[21] Borillo (1991 : 100)에 따르면 *la valeur aspectuelle de la situation en jeu ne peut être établie que par une intégration progressive de tous les constituants contenant des éléments qui participent à sa définition* (사건의 상적 가치는 그 상을 정의하는데 참여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모든 구성 요소의 점진적 통합으로만 정해질 수 있다).

[22] Bach (1986 : 10)는 사건의 균질성에 대해 “두 개의 뛰는 사건(two runnings)은 하나의 뛰는 사건이 되지만, 하나의 죽는 사건 (dying)을 이루는 두 개의 죽는 사건은 없다”고 설명한다.

[23] Ibid., p. 8

이 장에서는 술어가 종결상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술어만으로 그러한 상이 현동화 되는 것은 아니며, 문장 내 다른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해 문장에 나타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또한 종결상이 가진 도달점을 현동화 할 때 특정 시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종결상과 완료상이 문장에서 하나의 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종결상과 완료상의 통합적 정의를 내릴 것이다.

2.1. 상 유형의 다양성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사와 같은 술어가 가진 의미뿐 아니라 문장 층위에서 술어와 결합하는 요소 역시 문장이 표상하는 상 유형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도달점을 전제하는 상을 구분하며 술어에 의해 결정되는 종결상과 도달점을 포함한 사건 전체를 시제를 통해 표상하는 완료상을 구분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상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를테면 종결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Vendler(1957)의 테스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이러한 테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술어 및 술어와 결합하는 문장 요소뿐만 아니라 시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9) a. Il a construit une maison en deux mois.
b. Il construisait une maison (*en deux mois).

(9)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 과거가 쓰일 때만 [완수]의 도달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복합 과거는 완료상을 실현하며, 이는 사건의 시작(점)과 지속 및 종료를 모두 포함하며 사건 전체를 표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종결상이 술어뿐 아니라 술어와 결합하는 문장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결상은 완료상의 실현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종결상과 완료상을 다르게 명명하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상을 실현하는 것처럼 여겨왔다.

우리는 도달점의 실현이 문장 층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종결상과 완료상이 모두 실현되어야 함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종결상 연구와 완료상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종결상과 완료상이 문장에서 서로 구별되지 않으며 통합적으로 실현됨을 보이고 두 개의 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할 것이다.

2.1.1. 종결상(télicité)

동사가 표상하는 사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도달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사행이 종결상을 가진다고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상 유형은 술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술어가 문장에서 결합하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달점을 전제하는 종결상 역시 여러 문장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종결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문장에서 실현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1.1.1. [완수]와 [종료] 그리고 종결상

Vendler(1957)에 따르면 도달점을 전제하는 동사는 사건이 종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en x temps>과 결합한다. 반대로 도달점이 전제되지 않는 사행의 경우에는 지속 시간만을 표시하는 <pendant x temps>과 결합한다.

(10) a. Pierre a construit une très belle maison en deux mois.
b. Marie a travaillé dans l’enseignement pendant douze ans.

이와 더불어 Vendler(1957)는 지속성, 순간성에 따라 도달점을 전제하는 동사를 완수와 종료로 구분했다. 특히 순간성을 가진 술어의 경우에는 전개 과정을 포함하지 않고 도달점만을 전제하기 때문에 <à x temps>과 결합하여 도달점을 표시할 수 있다.

(11) a. J’ai atteint le sommet (à midi + en trois heures)
b. Elle a fabriqué son album (??à midi + en deux mois)

예문 (10)와 (11)에서 볼 수 있듯이, 완수와 종료는 모두 <en x temps>과 결합한다. 완수는 도달점을 포함하며 도달점에 이르는 전개(déroulement)를 포함하는 사행이고, 종료는 경우에 따라 전개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달점만을 포함하는 사행이다. 이렇게 두 상 유형은 도달점 전제를 공통점으로 가진다. 동시에 이 두 상 유형은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pendant x temps>과 결합하지 못 한다.

(12) a. Pierre a construit une très belle maison *pendant deux mois.
b. J'ai attaint le sommet *pendant trois heures.

따라서 우리는 완수와 종료 간의 차이와 관계 없이 두 상 유형이 도달점을 전제하는 사행임을 알 수 있다.

Jayez (1993 : 2-8) 역시 <en x temps>을 근거로 완수와 종료가 같은 종결상(télicité)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전개를 상정할 수 있는 종료 동사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완수와 종료의 구분이 "명확함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Rothstein (2008b : 48-49) 역시 완수와 종료는 진행상과의 결합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미완료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통해 종결상(telicity)으로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eclerk (2007 : 54-55) 역시 종결상(telicity)에 대해 본원적인 도달점을 가진 사건의 유형이며 이러한 도달점 없이는 사건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aas (2009 : 26) 역시 종결 사행과 비종결 사행(procès télique/atélique)를 구별하고 완수와 종료가 같은 종결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우리는 종결상의 관점에서 완수를 나타내는 동사와 종료를 나타내는 동사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2.1.1.2. 도달점을 부여하는 문장 내 요소

하지만 앞서 1장에서 살폈듯 결합 가능한 시간 표현은 술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특히 목적어 논항의 획정(délimitation) 여부나 도달점을 설정하는 방향 전치사 및 수량사 유무에 따라 종결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지적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24]

(13) a. J'ai mangé **une** pomme (en une minute + *pendant dix minutes)
b. J'ai mangé **des** pommes (*en dix minutes + pendant dix minutes)

위와 같이 완수로 분류되는 manger는 논항이 복수 부정관사일 때 <en x temps>와 결합하지 못 하게 된다. 반면 단, 복수 정관사 및 수량사와 결합할 때에는 <en x temps>과 결합 가능하다. 술어와 결합하는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이 종결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endant x temps>과 결합하던 술어들 역시 경우에 따라 적절한 요소와 결합하면 <en x temps>과 결합할 수 있다.[25]

(14) a. J'ai marché pendant deux heures
b. J'ai marché **jusqu'à l'école** (en trente minutes + *pendant trente minutes)

예시 (3)과 마찬가지로 이 때 도달점을 지칭하는 방향 전치사는 종결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술어 자질이 아닌 문장 요소들의 합성[26]을 통해 종료 의미(Terminativity)가 나타난다고 보는 Verkuyl(1972, 1993, 2001)와 일치한다.[27]

---

[24] Verkuyl(1972, 1993), Mourelatos(1978), Dowty(1978), Tenny(1994), Jackendoff(1996), Asnès(2008) 등 참조.

[25] Verkuyl(1993)는 이런 동사를 'Push'류 동사로 구분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술어의 경우에는 목적어 내부 논항이 존재하더라도 일반적인 타동사와 달리 목적어 논항에 따른 종결, 한정 의미가 없기 때문에 <en x temps>과 결합하지 못 하고 <pendant x temps>과만 결합한다. 하지만 방향 전치사와 같이 한정 의미를 가진 요소가 도입되면 마찬가지로 <en x temps>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Huyghe (2010 : 105-106) 참조.

a. Il a poussé le caddie (pendant deux heures + *en deux heures)
b. Il a poussé son caddie jusqu'à la caisse (*pendant dix minutes + en dix minutes)

[26] 합성성에 대해 Fuchs, Gosselin & Victorri (1991 : 157)는 "언어 단위의 집합의 의미는 각 단위의 개별적 의미에서부터 추론되거나 예상되고 합성 관계로 맞물려 있다"고 설명한다.

[27] Verkuyl 에 따르면 동사는 정태성과 동적성으로만 구분되며 동사와 결합하는 보어나 문장 요소들이 종료 의미에 기여한다.

결국 술어 외에 술어와 결합하는 요소에 따라 종결상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종결상이란 어휘가 지닌 고유한 자질이라고 보기 어렵다.

2.1.2. 완료상(aspect accompli)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종결상은 위에서 언급된 요소 외에도 시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 장에서는 완료상의 특성을 통해 위에서 지적한 완수와 종결에 함께 나타나는 종결상이 실현됨을 보일 것이다.

2.1.2.1. 실현된 총체로서의 사행

완료상은 동사가 가리키는 사행 전체가 시간 속에서 실현되어 표상될 때 나타나는 상을 말한다. 이 때 완료상은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이 지칭하는 사건의 총체[28]를 가리킨다. 반대로 미완료상의 경우 시작, 진행, 종결과 같이 사행의 특정 구간을 지칭하며 사건의 총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종결상이 있다고 간주되는 완수의 경우 반과거와 같이 사건의 진행이 부각되는 시제와 결합하는 경우 미완료상을 가진다. 반대로 시간적으로 종료된 사행과 결합하는 복합 과거와 결합할 경우에는 완료상을 가진다.[29]

(15) a. Il construisait une maison.

---

[28] Declerk (2007, Ch 2) 참조

[29] 완료상의 지위는 명확치 않다. 상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차원에서 보면 시제는 어휘가 선택하는 논항이나 어휘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완료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미완료상의 경우 사건의 특정 구간을 지적하기 위해서 조동사와 결합하게 되는데, 이 때 이러한 조동사와의 결합 가능성은 술어가 구성하는 문장의 상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요소들에 대해 문법 시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Wilmet(1991), Haas (2009, Ch 1) 참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b. Il a construit une maison.

(15a)는 [완수] 사행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달점에 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5b)는 [완수] 사행 전체가 시제를 통해 표상되어 도달점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완료상을 가진 문장은 상황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며 완료상을 가진 문장은 발화 시점에 벌어진 사건을 지칭하는데 쓰인다.

(16) Marie a rédigé un mémoire de 60 pages quand Pierre rédigeait un mémoire de 30 pages

(16)의 주절은 복합 과거와 결합하며 동사가 가리키는 사행의 모든 구간을 포함하여 사행을 표상하는 반면 quand 종속절의 경우 사행의 여러 구간 중 진행 구간을 기술한다. 따라서 위 예문은 quand 종속절이 진행되는 중 어느 한 구간에서 주절의 사건이 완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1.2.2. 완료상 속성

시제는 모든 술어와 결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제가 특정 술어와 결합할 때 완료상을 드러낸다고 해서 해당 시제와 결합하는 모든 술어가 완료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30]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에 영향을 받아 <en x temps>과 결합할 수 있는 rédiger와 같은 술어는 복합 과거, 단순 미래와 같은 시제와 같은 완료상을 드러내는 결합할 때 종결상이 드러난다.

(17) Il (a rédigé + va rédiger + rédigera) son mémoire en un mois.

이 때 위 예시에 나타나는 세 시제는 사건이 등재되는 시간인 과거, 미래의 차이만 있을 뿐 사건의 총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완료상을 나타낸다.

---

[30] Declerk (2007 : 52) 참조.

한편 종결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술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시제 및 사행의 지속 시간의 한정을 통해 사건의 총체를 지칭할 수 있다.[31]

(18) a. Il (a travaillé + va travailler) pendant un mois.
b. Il travaillera pour deux mois.

위 (17)-(18) 예시를 통해 완료상이 종결상과 관계 없이 시제를 통해 시간적으로 구분되어 실현된 사건의 총체를 지칭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2.1.2.3. 완료상 발현 환경

따라서 한 문장이 완료상을 갖기 위해서는 사행이 전개되는 시간이 한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사행이 전개되는 시간을 획정해주는 표현과 결합한다.

(19) a. Marie a travaillé pendant deux heures.
b. Marie va travailler pour deux mois.
c. Marie continue à travailler (*pendant deux mois).
d. Marie travaillait (*pendant deux mois).

(19a)와 (19b)의 경우 활동으로 분류되는 동사 travailler가 사행의 시간을 획정해주는 표현과 결합하기 때문에 완료상을 가진다. 이 때 (18a)가 이러한 시간 표현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복합 과거, 미래 혹은 단순 과거, 미래 시제가 나타나야 한다. 이와 달리 (18c)와 같은 지속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나 (18d)와 같이 진행을 나타내는 반과거 시제와 결합할 경우 이러한 시간 표현과 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종결상을 가진 어휘 역시 이와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여준다.

(20) a. Paul a rédigé son mémoire en un mois.
b. Paul rédigera son mémoire en deux mois.
c. Paul rédigeait son mémoire (*en un mois).
d. Paul continue à rédiger son mémoire (*en deux mois).

[31] Deparetere(1995), Smith(1991, 1999) 참조.

(20a)와 (20b)는 완수로 분류되는 동사 rédiger 가 사행의 시간을 획정해주는 <en x temps>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 travailler 동사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제는 복합 과거, 미래 혹은 단순 과거, 미래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행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나 시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 한정 표현과 결합하지 못하면서 완료상을 갖지 못한다.

이를 통해 비종결상 동사 역시 종결상을 가진 술어들과 같이 시작, 진행, 종결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간 제약을 받는다고 해도 상태로 분류되는 술어의 경우는 사건의 모든 구간이 서로 균질(homogène)하기 때문에 완료상을 드러내는 시제와 결합한다고 해도 위에서 나타나는 시간 한정 표현들과 전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상태가 나타나는 문장들은 완료상을 가질 수 없다.

(21) a. Paul et Marie ont été tristes (*pendant deux mois).
b. Paul et Marie vont être tristes (*pendant deux mois).
c. Paul et Marie étaient tristes (*pendant un mois).
d. Paul et Marie continuent à être tristes (*pendant deux mois).

두 번째로 완료상 해석을 갖는 문장은 총체로서 실현된 사행을 가리키기 때문에 문장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사행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Smith(1991, 1999)는 완료상을 가진 문장이 개별 사건을 가리키며 문장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22) He got up [종료], played the piano [활동], ate breakfast [완수] and strolled in the park [활동] (Smith 1999 : 484)

(22)는 '그는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고 아침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다'라는 사건의 연쇄를 보여준다. 이 때 각 사건들은 완료상을 가지며 문장에 나타난 순서대로 발생한다. 따라서 두 개의 문장이 나타날 때 문장이 가리키는 사행이 시간순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 각각의 문장은 완료상을 가진다. 이 때 종결상을 가진 술어 구문과 그렇지 않은 술어 구문 모두 사건의 순차적 해석이 가능하다.

(23) a. Il a travaillé pendant huit heures et il est rentré chez lui

b. Il a travaillé pendant huit heures avant d'être rentré chez lui

(23)에 나타나는 동사는 [활동]으로 분류되는 travailler와 [종료] 분류되는 rentrer이다. 그러나 이 두 동사가 구성하는 문장은 모두 시제를 통해 완료된 것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두 문장이 표상하는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종결상과 완료상은 일치하지만, 반대로 완료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종결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32]

결국 사건의 총체를 가리키는 완료상은 술어 어휘 자질 뿐만 아니라 시제의 영향을 받는다.

2.2. 완결상

결국 동일한 의미를 실현하는 요소들의 두 층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종결상과 완료상은 모두 문장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층위에서 나타나는 종결 혹은 완료 의미를 야기하는 요소를 층위별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종결을 통해 개별화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문장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종결, 완료 의미에 개입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2.1. 완결상 속성

이러한 관점 아래서 우리는 Declerk(2007)의 한정(boundedness)이라는 개념을 차용할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종결상과 완료상에 의해서든 완료상에 의해서든 사행의 총체를 표상하는 문장은 모두 한정으로 분류된다. 결국 완결상은 문장에서 사행을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33]

---

[32] Jayez (1996 : 3)

[33] Declerk (2007 : 42) 참조.

(24) a. Ce soir, elle va boire cinq verres de champagne (한정)
b. Ce soir, il va boire du champagne (한정)[34]
(cf. Declerk 2007 : 58)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되 '완결상(perfectivit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기존 종결상이나 완료상과의 유사점을 강조하면서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이다.

2.2.2. 완결상 발현 환경

완결상은 앞서 살펴본 종결상과 완료상의 속성에서 보여준 몇 가지 통사 행태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시간 표현과의 결합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 때 시간 한정 표현은 사행이 전제하는 도달점이 실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리키거나 지속되는 사행에 임의적으로 시간적 경계를 부여하는 표현이어야 한다.

(25) a. Marie a construit la maison en un mois, donc en très peu de temps
b. Marie a marché pendant une heure (Jayez 1993 : 3)

---

[34] Declerk(2007)은 어떤 문장이 (자연적 혹은 임의적) 종료점(terminal point)에 도달한 사건을 표상할 때 이러한 문장이 한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종결상이 전제되지 않은 술어가 미래 시제로 실현되는 경우를 비한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Tonight I Will drink chapagne !) 그럼에도 명시적인 시간 표현이 임의적인 종료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 I am going to run the marathon for another twelve years (한정)

b. I am going to run the marathon for many more years (비한정) (Ibid., p. 62)

위 예시 중 b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우리는 예문 (24)에 나타난 'ce soir'와 같은 시간 표현 역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종료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간주할 것이다. 이는 Jayez (1993 : 3)가 종결상과 완료상을 종결상의 두 유형(E-télicité/K-télicité)으로 분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Depraetere (1995 : 2-6)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한다.

a. John live in London for a year (비종결상 한정)

b. I ate an apple (종결상 한정) (Deparetere 1995 : 5)

(25a-b)와 같이 시간 한정 표현과의 결합 여부를 통해 실현된 사행 전체를 지칭하는 문장을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구분 방법은 순차 해석 문맥이다. 사행 전체를 지칭하는 완결상 문장의 경우 문장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avant, après와 같은 순서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결합하여 서로 사행의 전후를 표시할 수 있다.

(26) a. Il a mangé une pomme comme petit-déjeuner et il a quitté la cuisine.
b. Il a travaillé huit heures et il est rentré à la maison.
c. Il a quitté la cuisine après avoir mangé une pomme.
d. Il a travaillé huit heures avant d'être rentré à la maison.

(26a-d)는 종결상 여부와 관계없이 완결상을 가진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6a)와 (26c)의 경우 모두 종결상을 가진 사행으로 '사과 하나를 먹은' 사건 이후 '부엌에서 나가다'가 복합 과거로 실현되어 문맥에 등장한 순서대로 해석된다. (26b)와 (26d)의 경우에도 비록 종결상이 없는 활동이 나타나지만 시간을 통해 경계가 주어지며 완결상을 얻어 종결상이 실현된 완수와 함께 나타나 순차 해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종결상을 가진 술어들을 구별하는데 사용되었던 Dowty(1979)의 presque의 중의성 여부도 완결상 문장을 구분하는데 쓰일 수 있다. presque가 완료 해석과 반사실 해석을 모두 가질 때 완결상을 가진다.

(27) a. Il a presque mangé une pomme
사과 한 개를 거의 다 먹었다(완료 해석)
사과 한 개를 먹은 것 같다(반사실 해석)
b. Il a presque travaillé huit heures
거의 여덟 시간을 일했다(완료 해석)
여덟 시간 동안 거의 일한 것 같다(반사실 해석)

마지막으로 완결상 해석을 가지는 문장은 문장이 표상하는 사행이 가진 구간(phase)을 드러내는 상 기능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28) a. Le chanteur a (fabriqué + commencé à fabriquer + continué à fabriquer + fini de fabriquer) son premier album.

b. Il a (travaillé + commencé à travailler + continué à travailler + fini de travailler)..

c. Il a (quitté + *commencé à quitter + *continué à quitter + *fini de quitter) la maison.

3. 술어 명사 구문과 완결상 결정 요소

술어 명사 구문의 경우에도 특정한 상을 발현시키는데는 여러 요소들이 관여한다. 이는 완결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술어 명사 구문에서 어떤 요소들이 완결상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소별로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술어 명사 구문에 대해 살피도록 한다.

3.1. 술어 명사 구문

술어 명사 구문은 술어 기능을 하는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이다. 즉, 명사가 의미 술어(prédicat)로서 자신의 논항과 함께 문장 의미의 핵을 이루고, 이 명사가 수행할 수 없는 통사적 서술어(prédicateur) 기능은 기능동사(verbe support)가 담당한다.[35]

3.1.1. 술어 명사와 기능동사

술어 명사(nom prédicatif)는 "문장 의미의 핵을 구성하고 고유한 논항 범주를 지닌 명사"[36]이다. 또한 이러한 명사가 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어로 사용되는 용법이 있어야 한다.[37]

술어 명사는 의미적으로는 문장의 핵을 이루면서도 동사와 달리 통사적으로는 문장의 핵이 되지 못 한다. 다시 말해 술어 명사는 선택 제약(restriction de sélection)을 부과하는 기능은 있으나 동사처럼 논항의 문장 내 위치를 결정하거나 어미 변화를 통해 현동화 기능을 담당함으로서 문장을 완성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결국 술어 명사와 그 논항이 문장 내에 배열되고 그 연쇄가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되기

---

[35] 의미 술어와 통사적 서술어 구분에 대해서는 이성헌(2015) 각주 1 의 홍재성(1999) 참조.

[36] Lévrier (1995 : 68)

[37] *Pour qu'un nom puisse exprimer l'aspect il faut qu'il ait un emploi prédicatif*. Haas (2009 : 47).

위해서는 이런 기능, 즉 현동화(actualisation) 기능을 가진 기능동사(verbe support)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술어 명사의 현동화를 위해 도입되는 기능동사는 "논항 선택 기능 없이 어미활용을 통해 시제와 상, 서법 등 문법의미를 표상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동사"[38]를 가리킨다. 이러한 기능동사는 술어 명사에 따라 다양하다. 기능동사는 현동화 기능 외에도 술어 명사 구문이 가리키는 사행의 시작, 중간, 끝부분과 같은 한 구간을 강조하는 상 표상 기능도 수행한다.[39]

(29) a. Paul fait une étude sur la vinification
b. Paul entame une étude sur la vinification
(Gross 1996 : 61-62)

(29)에 나타나는 술어 명사 étude는 현동화를 위해 기능동사 faire와 결합하는가 하면 기동상을 나타내기 위해 이에 특화된 entamer와도 결합한다.

3.1.2. 술어 명사 구문 특성

술어 명사와 기능동사의 연쇄로 구성되는 술어 명사 구문(혹은 기능동사 구문)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40]

---

[38] 이성헌 (2015 : 110). 기능 동사의 구체적 특성에 대해서는 Gross(1996) 및 이성헌(2015) 각주 2 에 제시된 논문 중 R. Vivès(1993) 참조.

[39] Gross (1996 : 61)는 "가능한 어휘상을 결정하는 것은 술어의 의미 유형이다"라고 지적하며 "기능 동사뿐 아니라 논항의 한정사, 부사, 접두사, 접사와 같은 문장 층위의 상당한 수의 요소가 상을 담당한다". 여기서 언급한 상은 어휘상(aktionsart, mode d'action, aspect lexical)을 의미한다.

[40] Vivès (1993 : 11)와 Gross (1996 : 55-56) 참조.

㉮ 술어 명사 관사 제약
㉯ 기능동사의 문법 기능
㉰ 기능동사의 삭제 가능성
㉱ 기능동사의 명사화 불가능성
㉲ 기능동사의 상 표시 가능성

표1. <술어 명사 구문 특성>

특징 ㉮는 술어 명사 구문에서 기능동사는 함께 나타나는 술어 명사에 어떤 의미도 부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30) a. Luc raconte (une + cette + ton) attaque contre la citadelle.
b. Luc mène (une + *cette + *ton) attaque contre la citadelle.
(Vivès 1993 : 11)

(30a)에서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 attaque는 동사 raconter가 선택하는 논항이다. 반면 (30b)의 경우 attaque가 술어 명사로 사용되었으며 이 때 mener는 기능동사이다. 같은 통사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관사 제약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술어 명사 구문에서 술어 명사의 실현이 (기능)동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술어 명사의 특성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31) a. Qu’est-ce qu’il a mené ? (*une attaque contre la citadelle)
b. Qu’est-ce qu’il a raconté ? Une attaque contre la citadelle.
c. C’est (*une attaque contre la citadelle) qu’il a menée.
d. C’est une attaque contre la citadelle qu’il a racontée.
(Ibid.)

마찬가지로 (31a)와 같이 술어 명사 구문에서 목적어 논항 위치에 나타나는 술어 명사는 que 의문문의 초점이 될 수 없는 현상과 (31c)와 같이 분열문의 초점이 될 수 없는 현상 역시 통사적으로 목적어 위치에 실현되지만 술어 명사가 일반 명사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징 ㉯는 기능동사가 자신의 문법 기능을 통해 술어 명사를 현동화해주는 요소일 뿐임을 보여준다.

(32) a. Léa a monté l'escalier.
b. Léa a fait la montée de l'escalier. (이성헌 2015 : 109)

(32a)에서는 목적어 논항이 동사 술어에 후행하는 반면 (32b)에서는 전치사 de를 통해 술어 명사에 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같은 의미 술어를 공유함에도 이런 통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술어 명사가 논항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특징 ㉰은 술어 명사 구문에서 기능동사가 의미적으로 비워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3) a. Paul a donné la réponse à cette question
b. La réponse de Paul à cette question

(33a)는 기능동사 donner를 통해 술어 명사 구문이 실현된 반면 (33b)는 명사구로 실현된 술어 명사이다. 이 때 의미 차이가 없으며, 논항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동사가 의미적으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징 ㉱ 역시 기능동사가 의미적으로 비워져 있음을 보여주며 통사 외에 술어 논항 선택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34) a. Paul a donné la réponse à cette question ≠ Le don de la réponse de Paul à cette question
b. Paul a donné une pierre précieuse à Léa = Le don d'une pierre précieuse à Léa

(34a)의 경우 réponse가 술어 명사로 기능하며 donner를 기능동사로 취하기 때문에 donner가 don으로 명사화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34b)는 donner가 일반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don이 술어 명사로 명사구화 되어 논항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역시 특징 ㉰와 마찬가지로 기능동사가 논항 선택의 주체가 아님을 보여준다.

특징 ㉲는 기능동사가 술어명사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35) a. Paul fait une étude sur la vinification.
b. Paul entame une étude sur la vinification.

(35a)는 일반 기능동사 faire가 쓰여 술어 명사 étude를 현동화해준다. 이와 달리 (35b)는 현동화와 함께 étude가 지칭하는 사행의 구간 중 시작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동상 기능동사와 사용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능동사는 술어 명사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발현에는 일반 동사 술어 구문보다는 더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 방식으로 기여하게 된다.

3.2.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결정 요소

여기서는 술어 명사 구문에서 나타나는 완결상 해석의 결정 요소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술어 명사의 상, 술어 명사의 비한정성,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 시제 그리고 상 기능동사가 모두 완결상 발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3.2.1. 술어 명사의 상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해석에 기여하는 요소로는 무엇보다도 술어의 상을 들수있다. 이 상은 술어 명사가 자신의 고유한 어휘 의미로 인해 본원적으로 표상하는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어 명사가 나타내는 상의 유형은 Vendler(1957)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술어 명사는 상태, 활동, 종료, 완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 종료와 완수에 속하는 술어 명사들과, 드물게는 활동에 속하는 술어 명사들이 완결상 해석에 깊이 관여함을 보게 될 것이다.

3.2.1.1. 술어 명사의 의미와 상 유형

술어 명사의 상도 그 의미에 따라 Vendler(1957)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6) a. La croyance que rien ne change provient soit d'une mauvaise vue, soit d'une mauvaise foi. (lehuffingtonpost.fr) [상태]
b. Pendant six ans, il a assuré la protection des hautes personalités. (midilibre.fr) [활동]
c. Côtes-d'Armor Habitat a réalisé la construction de quinze logements passifs en énergie à Ploufragan. (ouest-france.fr) [완수]
d. Le premier président socialiste de la Ve République a fait son entrée à 9 heures 30. (sudouest.fr) [종료]

(36)에서 보듯이, 술어 명사 croyance, protection, entrée, construction은 각각 [상태], [활동], [종료] 그리고 [완수]로 분류되는 유형의 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상태]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여 사행을 성립하게 해주는 동태성이 없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6a)의 croyance는 <pendant x temps>과 결합할 수 없다.

(37) La croyance (***pendant cent ans**) que rien ne change provient soit d'une mauvaise vue, soit d'une mauvaise foi.

[활동]은 동태성은 가져 지속성을 가지지만 지속성 내에 도달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36b)의 protection은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pendant x temps>과 결합하고 진행상과 결합할 수 있다.

(38) a. Il a assuré la protection des hautes personalités pendant six ans.
b. Il est en train d'assurer la protection des hautes personalités.

그런가 하면 [완수]는 동태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며, 또한 도달점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36c)의 construction은 도달점에 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표시하는 <en x temps>과 결합하며, 진행상 표현과 결합한다.

(39) a. Côtes-d'Armor Habitat a réalisé la construction de quinze logements passifs en énergie **en deux mois**.

b. Quinze logements passifs en énergie en deux mois **sont en construction**.

[종료]는 동태성을 가지지만 지속성 대신 도달점만을 포함하는 순간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36d)의 entrée는 도달점에 이른 특정 순간을 지칭하는 <à x temps> 표현과 결합한다.

(40) Le premier président socialiste de la Ve République a fait son entrée **à 9 heures 30**.

이렇게 술어 명사에서도 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에 따라 상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술어 명사가 완결상 해석 결정 요소로서 완결상 해석을 갖는 문장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본다. 특히 [완수]와 [종료]는 문장의 완결상 해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와 달리 [활동]의 경우에는 모든 술어 명사가 완결상 해석을 갖는 문장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3.2.1.2. [완수] 술어 명사와 완결상

위와 같이 Vendler식으로 구분된 술어 명사들 중에서 사행 유형이 [완수]에 속하는 술어 명사는 가장 두드러지게 완결상 발현에 기여한다.

(41) a. Ils ont réalisé la construction d'un four unique pour cuire les pièces en terre. (ladepeche.fr)
b. La mairie de Noisy-le-Sec a procédé à la rénovation de sa salle des mariages (leparisien.fr)
c. Enfin, le club a procédé à la modification de son nom en raison de la réforme des territoires. (lepopulaire.fr)

(41)에서는 앞서 Vendler식으로 분류한 술어 명사의 행태에서 확인한 대로 술어 명사와 시간 표현의 결합 가능성을 통해 [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42) a. Ils ont réalisé la construction d'un four unique pour cuire les pièces en terre (en un mois).
b. La mairie de Noisy-le-Sec a procédé à la rénovation de sa salle des mariages (en trois mois).

c. Enfin, le club a procédé à la modification de son nom (en une semaine), en raison de la réforme des territoires.

그리고 [완수]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42)의 문장들은 완결상 해석 테스트인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난다.

(43) a. La mairie a réalisé la construction d'une salle de mariages **et** trois mois plus tard, elle a procédé à la rénovation de cette salle de mariages.
b. La mairie a procédé à la rénovation de sa salle de mariages **après** avoir réalisé sa construction.
c. Le club a procédé à la rénovation de son siège **et** il a procédé à la modification de son nom.
d. Le club a procédé à la modification de son nom **avant** d'avoir procédé à la rénovation de son siège.

(43a)과 (43c)의 경우 문장이 등장하는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한다. 즉, 두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구별되며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다. 따라서 두 문장은 사행 전체가 표상된 끝난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에 완결상을 갖는다. 예시 (43b)와 (43d) 역시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전치사 après, avant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완수]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들은 자신이 나타나는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해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물론 [완수]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들 중에는 <en x temps>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41]. 대표적으로 réparation, présentation, rénovation, accouchement 등을 들 수 있다.

(44) a. Une réparation de quinze minutes
b. La réparation a duré quinze minutes. (Haas 2008 : 2056-2057)
c. Une présentation de dix minutes

[41] Knittel(2016 : 256)은 동사와 같이 <en x temps>과 <pendant x temps>와 결합하는 대표적인 부류로 construction 과 expression 을 꼽았다. 이와 달리 <en x temps>이나 <pendant x temps>과 결합하지 못하며 부정관사 une 과 결합하는 술어 명사들의 대표적 부류로는 présentation, réunion, modification 등을 꼽았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술어 동사와 술어 명사의 차이로 인해 각 부류가 드러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d. Il a fait une présentation de dix minutes de son projet d'étude.

(44)의 술어 명사들은 <en x temps>과 결합하지 못하는 대신 <de x temps>과 <le N a duré x temps>을 통해 사행의 지속성과 도달점을 표현한다. 그리고 Haas(2008)는 이러한 술어 명사들과 전형적인 [완수]가 동일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Dowty(1979)가 동사의 종결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한 미완료 모순 테스트[42]를 술어 명사에 도입했다.[43]

(45) a. La réparation de la voiture a pu être interrompue au bout d'une heure = On n'a pas réparé la voiture
b. La présentation de son projet d'étude a pu être interrompue au bout de 5 minutes = il/elle n'a pas présenté son projet d'étude (jusqu'au bout).
c. La manifestation a pu être interrompue au bout de deux heures = ils ont manifesté.

(45a-b)의 경우 <de x temps>과 <le N a duré x temps>과 결합 가능한 술어 명사들이 진행 중 중단되었을 경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45c)의 경우 [활동]으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로 이 명사들이 역시 <de x temps>과 같은 지속성 표현과 결합하지만 미완료 모순이 발생하여 사건이 중간에 중단된다고 해도 이미 일정 부분이 실현되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전형적인

---

[42] Haas (2008 : 2057)은 동사 구문에 적용되는 미완료 테스트를 명사에 적용하기 위해 <Le N a pu être interrompu au bout de x temps> 구문을 적용하여 사건이 발생되었음을 함의하는 경우는 종결상이 없는 술어 명사로,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함의하는 경우는 종결상을 가진 술어로 분류했다. 종결상이 없는 술어 명사가 해당 구문에 들어갈 경우 사건이 이미 발생했음이 함의된다.
a. La manifestation a pu être interrompue au bout de deux heures = Ils ont manifesté.
b. L'accouchement a pu être interrompu au bout de deux heures = Elle n'a pas accouché.

[43] 이러한 방식으로 술어 명사들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대표적으로 Kiefer(1998), Van de Velde(2006), Beauseroy(2007), Haas, Huyghe & Marín(2008), Haas(2009), Heyd & Knittel(2009), Beauseroy & Knittel(2010), Haas & Huyghe(2010)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술어 명사의 통사 행태와 분포를 중심으로 어휘가 가진 자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술한다.

[완수]와 <en x temps>과 결합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는 [완수]가 동일한 의미를 통해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완수] 술어 명사들이 나타나는 구문 역시 완결상 해석을 갖는 문장에 나타난다.

(46) a. Il a fait une présentation de son projet d'étude **et** il a eu un repas avec ses collègues.
b. Il a eu un repas avec ses collègues **après** avoir fait une présentation de son projet d'étude.

3.2.1.3. [종료] 술어 명사와 완결상

사행 유형이 [종료]에 속하는 술어 명사도 [완수] 술어 명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구성하는 문장의 완결상 해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47) a. Les trois principaux opérateurs en Corée du Sud (SK Telecom, KT et LG U) ont donné la confirmation de 300,000 précommandes (worldissmall.fr)
b. Il a pris le départ à 18 heures 30 pour Paris.
c. L'arrivée de dizaines de familles de gens du voyage s'est faite en une vingtaine de minutes à peine. (lepopulaire.fr)

(47)은 Vendler식으로 분류한 술어 명사의 행태에서 확인한 대로 술어 명사와 <à x temps>의 결합 가능성을 통해 [종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48) a. Les trois principaux opérateurs en Corée du Sud ont donné la confirmation de 300,000 précommandes le 20 juin **à 9 heures 30**.
b. Il a pris le départ **à 18 heures 30** pour Paris.
c. L'arrivée de dizaines de familles de gens du voyage s'est faite **à 11 heures du matin**.

이렇게 [종료]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47)의 문장들은 완결상 해석 테스트인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난다.

(49) a. Il a pris le départ à 18 heures 30 vers Paris **et** il a dormi dans le train pendant deux heures

b. Il a dormi dans le train pendant deux heures **après** avoir pris le départ à 18 heures 30.
c. L'arrivée de dizaines de familles de gens du voyage s'est faite **et** les bénévolats ont fait leur arrivée.
d. L'arrivée de dizaines de familles de gens du voyage s'est faite **avant** que les bénévolats aient fait leur arrivée.

[완수] 술어 명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료]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49a)과 (49c)의 경우 문장이 등장하는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한다. (49b)와 (49d) 역시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전치사 après, avant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종료]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들은 자신이 나타나는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해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한편 [종료]에 속하는 술어 명사들은 여러 하위 부류로 나뉠 수 있다. Haas & Jugnet(2013)에 따르면 [종료]는 도달점을 기준으로 이전 상황에 해당하는 준비 구간(phase préparatoire) 혹은 이후 상황에 해당하는 결과 상태(état résultant)의 포함이라는 기준에 따라 어떤 상황도 포함하지 않는 기본 종료(achèvement pur), 준비 구간을 포함하는 우측 종료(achèvement droit), 결과 상태를 포함하는 좌측 종료(achèvement gauche)로 나뉜다.

우리가 소개한 전형적인 [종료]에 해당하는 기본 종료와 같이 우측 종료는 <à x temps>과 결합하기는 하지만 준비 구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달점에 이르는 시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en x temps>과도 결합할 수 있다.

(50) a. L'arrivée de dizaines de familles de gens du voyage s'est faite **en une vingtaine de minutes à peine**.
b. L'arrivée de dizaines de familles de gens du voyage s'est faite **à 22 heures**.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측 종료는 [종료] 본연의 순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44] 기본 종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

[44] arrivée 와 같은 [종료] 술어 명사들은 <en x temps>과 결합할 수 있지만 [완수]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들과 달리 지속성을 전혀 표현할 수 없다. 이에 대해 Kearns(2003 : 9)은 종료와 함께 나타나는 <en x temps>이 완수와 달리 사건 발생 이전의 구간을

하지만 좌측 종료의 경우에는 <à x temps>과 결합하면서도 도달점 이후 결과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활동]으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와 같이 <pendant x temps>과 결합하거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비전형적인 완수와 같이, <de x temps>, <le N a duré x temps>과 결합한다.

(51) a. Ils étaient jugés pour **avoir organisé l'occupation pendant quelques heures**, le 20 octobre 2012, **du toit de la mosquée** (lemonde.fr)
b. L'occupation du magasin **a duré trois heures environ** (lalsace.fr)
c. Une occupation **de près d'un mois** (rue89lyon.fr)

따라서 [종료]의 순간성을 공유하지만 지속성을 가진 좌측 종료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는 나머지 두 종료와 다른 방식으로 사행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완결상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종료]라는 분류 안에서 해당 부류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45]

3.2.1.4. [활동] 술어 명사와 완결상

앞선 [완수]와 [종료]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들 정도는 아니지만 [활동]으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 역시 완결상 해석에 기여할 수 있다.

(52) a. Pendant six ans, il a assuré la protection des hautes personalités.
b. les trois cuisiniers qui ont procédé à la cuisson du fameux «sanglier à la broche» (ladepeche.fr)
c. En prenant le contrôle de Banesco pendant 90 jours, le gouvernement de Nicolas Maduro a décidé d'augmenter la pression (rfi.fr)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Haas & Jugnet(2013) 역시 <en x temps>과 결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다음 예시를 통해 보여준다.

a. (La réparation de la voiture + *l'acquisition de la maison) a duré deux jours
b. Pierre s'est blessé pendant (la réparation + *l'acquisition)

[45]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이러한 좌측 종료의 통사 행태가 어떤 술어 명사 부류와 연관이 있는지에, 완결상 발현의 차원에서 좌측 종료를 어느 부류로 재분류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

(52)는 Vendler식으로 분류한 술어 명사의 행태에서 확인한 대로 술어 명사와 <pendant x temps>의 결합 가능성을 통해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53) a. **Pendant six ans**, il a assuré la protection des hautes personalités.
b. les trois cuisiniers qui ont procédé à la cuisson du fameux «sanglier à la broche» **pendant 30 minutes**.
c. En prenant le contrôle de Banesco **pendant 90 jours**, le gouvernement de Nicolas Maduro a décidé d'augmenter la pression.

그리고 [활동]으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54)의 문장들은 완결상 해석 테스트인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난다.

(54) a. Il a assuré la protection des hautes personalités pendant six ans **et** il est devenu un candidat de la téléréalité.
b. Il est devenu un candidat de la téléréalité **après** avoir assuré la protection des hautes personalités pendant six ans.
c. Maduro a pris le contrôle de Banesco pendant 90 jours **et** il a pris le contrôle d'une autre banque pendant un mois.
d. Maduro a pris le contrôle d'une banque pendant un mois **après** avoir pris le contrôle de Banesco pendant 90 jours.

한편 [종료]에서와 마찬가지로 [활동] 역시 여러 하위 부류로 나눠진다.[46] 이를 통해 <pendant x temps>과 결합하는 모든 술어 명사가 완결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pendant x temps>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활동]에 분류됨을 보이고 완결상 해석에 기여하는 술어 명사들이 있다.

활동은 통사적 특성에 따라 jardinage 부류, danse 부류 그리고 discussion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jardinage 부류는 <faire du

[46] 활동 술어 명사 하위 구분과 구체적인 통사 속성에 대해서는 Flaux & Van De Velde(2000), Heyd & Knittel(2009), Beauseroy & Knittel(2012) 참조. 이 연구들은 대체로 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술어 명사들이 1) 지속 표현과 결합이 가능한지 2) 복수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3) 부분 관사와 결합하는지 여부를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N>[47] 구문으로만 나타나며 취미, 분야, 직업 등의 상태를 나타내며, 복수화가 불가능하다.

(55) a. Le jardinage (*pendant deux ans)
b. Un jardinage (*de deux heures + *de deux ans)
c. Il a fait (beaucoup de jardinage + *de jardinages)
d. Le jardinage (*a duré deux ans).
e. Elle a fait du jardinage (pendant vingt ans).

[활동]으로 분류되는 (55a)의 술어 명사 jardinage는 습관, 직업, 분야 등의 상태를 나타내며 다른 사행과 구분되는 개체적 성격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체적 성격을 가진 사행을 나타내는 문장과 결합할 때 순차 해석을 받을 수 없다.

(56) a. Elle a fait du jardinage pendant vingt ans **et** (*elle a quitté son jardin).
b. Elle a quitté son jardin **après** (*avoir fait du jardinage pendant vingt ans).
c. Elle a fait deux heures de jardinage et elle a quitté son jardin.
d. Elle a quitté son jardin après (avoir fait) deux heures de jardinage.

한편 술어 명사들 중에서는 <pendant x temps>과 결합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활동]의 하위 부류 중 discussion 유형에 해당하는 discussion, réunion, manifestation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 술어 명사들은 <de x temps>, <le N a duré x temps>과 결합하면서도 앞서 확인한 비전형적인 [완수]와 달리 미완료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pendant x temps>과 결합하는 전형적인 [활동]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7) a. On a eu une discussion de deux heures avec le professeur.

---

[47] <faire du N> 구조에 나타나는 술어 명사는 보통 습관이나 직업 혹은 분야와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활동]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A : Qu'est-ce que tu faisais à 14 h ?
B : Je (*faisais + *étais en train de faire) de la linguistique/de la syntaxe/du jardinage

b. La réunion a duré deux heures.
c. On a fait (*de la manifestation + du jardinage) pendant deux mois.

(58) a. La discussion a pu être interrompue au bout de 30 minutes = on a discuté
b. La réunion a pu être interrompue au bout d'une heure = on s'est réunis.

(57)에 나타나는 술어 명사는 완결상 해석을 받는 문장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술어 명사가 이루는 구문은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59) a. On a eu une discussion de deux heures avec le professeur **et** on a eu un diner ensemble.
b. On a eu un dîner avec le professeur **après** avoir eu une discussion de deux heures avec lui.

3.2.2. 술어 명사의 비한정성

술어 명사의 비한정성(indéfinitude) 역시 완결상 발현에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술어 명사가 비한정성을 가질 때 해당 문장이 완결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술어 명사의 가산성(comptabilité)이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3.2.2.1. 한정성 vs. 비한정성

명사의 한정성은 일반적으로 정관사를 통해 표현된다. 문맥상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므로 대상을 개별화(individualisation) 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한편 비한정성은 일반적으로 부정관사를 통해 표현된다. 문맥상 선행 요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지만, 그 지시 대상을 개체로서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48]

술어 명사와 관련하여 <en x temps>이나 <pendant x temps>과

[48] 한정성과 비한정성에 대해서는 박정준(2009)의 2 장을 참조했다.

결합하는 술어 명사들은 언제나 약세 정관사(défini faible)[49]라고 부르는 단수 정관사와만 결합한다. 이 때 나타나는 정관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한정성과 달리 문맥상 언급된 것을 가리키지 않으며, 개별성이 보류된 개체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정관사 및 자신이 목적어 논항으로 취하는 목적어를 지칭하는 소유 한정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관사와도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성질은 결국 한정성 혹은 비한정성 어느 한 쪽으로도 분류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준한정성(quasi-définitude)로 명명하기로 한다.

이와 달리, Knittel(2016)에 따르면 부정관사와 결합하는 술어 명사들은 비한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행이 개체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부정관사와 결합하는 술어 명사들은 총체로서 실현된 사행을 지칭하게 되며 이는 완결생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50]

프랑스어 명사 상 연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비한정성을 가진 관사들과 결합하는 명사에 'occurrence'라는 자질을 부여하는 연구들이 있다.[51] 'occurrence'란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개별화되어 실현된 대상을 나타내는 자질이다. 이는 술어의 상에 두루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cf. 3.1.1.) 이러한 자질이 특정 상 부류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가 가진 자질이라기 보다는 사행이 개체화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자질을

---

[49] Knittel(2016)에 따르면 약세 정관사는 일반 정관사(défini fort)와 달리 이전 문맥에 등장한 지칭 대상을 참조할 수 없다. 약세 정관사는 동사성을 유지하여 <en x temps>이나 <pendant x temps>과 결합할 수 있는 술어 명사들과 함께 나타난다. Knittel(2016)은 이러한 관사가 비가산 명사(nom massif)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성을 가질 수 있는 술어 명사들과 대비시키고 가산성을 가질 수 있는 술어 명사가 완료상을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50] Knittel(2016)은 약세 정관사가 아닌 부정관사와 나타날 수 있는 술어 명사들이 <de x temps>과 같은 시간 한정 표현과 결합하면서도 종결상 식별 테스트로 사용되는 <en x temps>과 분포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비한정성을 드러내는 명사들이 완료상(aspect accompli)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우리는 Knittel 을 따라 이러한 명사들이 완료상을 드러낸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앞서 완결상 해석에 기여하는 술어 명사 부류들에서 살펴보았듯 (cf. 3.1.1.) <de x temps>과 결합하는 명사에서도 종결상 유무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51] Haas, Huyghe & Marín(2008); Barque et *al.*(2008); Huyghe(2010) 참조.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정관사와 결합한 술어 명사들은 자신이 표상하는 사행의 개체적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끝난 상태로 표상하게 된다. 그런만큼 비한정성이 나타날 때 완결상 해석이 용이해진다.

3.2.2.2. 비한정성과 완결상

술어 명사의 비한정성은 자신이 구성하는 문장의 완결상 해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60) a. Le SAV a également déclaré avoir effectué **une réparation** du bouton principal. (lexpansion.lexpress.fr)
b. Il y a eu **beaucoup de** modifications de lignes(ouest-france.fr)
c. nous avons procédé à **pas mal de réparations** (courrierpicard.fr)

(61) a. **Un premier départ** a eu lieu à 5 h 15 en bus, avec un changement à Morcenx, pour une arrivée à 8h25 à Dax. (sudouest.fr)
b. Sur ces arrivées, **plus de la moitié** (497.336) ont eu lieu sur l'île de Lesbos (lefigaro.fr)
c. Il y a **beaucoup d'arrivées** depuis ce matin, les dernières sont prévues à 16h30 (francetvinfo.fr)

(60)와 (61)는 모두 부정관사와 함께 나타나 비한정성을 갖는 술어 명사가 중심이 되는 문장들이다. 이 문장들은 모두 완결상 해석을 보여주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62) a. Le SAV a effectué une réparation du bouton principal **et** il a effectué une réparation du bouton de volume.
b. Le SAV a effectué une réparation du bouton principal **avant** d'avoir effectué une réparation du bouton de volume.

(63) a. Plus de la moitié de ces arrivées ont eu lieu sur l'île de Lesbos **et** les autres arrivées ont eu lieu sur l'île de Lampedusa.
b. Plus de la moitié de ces arrivées ont eu lieu sur l'île de Lesbos **avant qu**'aient eu lieu les autres arrivées sur l'île de Lampedusa.

(62)과 (63)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관사와 나타나는 술어 명사들은 순차 해석 문맥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부정관사가 일으키는 비한정성은 완결상 해석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3.2.3. 술어 명사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

술어 명사의 목적어 논항도 술어 명사 구문 전체의 완결상 해석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술어 명사가 목적어 논항을 취할 때 이 논항 명사가 획정되어 나타나면 문장 전체가 완결상을 나타낸다.

3.2.3.1. 획정성

획정성(nature délimité[52])이란 그 대상이 개체화되어 가산성을 갖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즉, 개체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관사들과 결합하는 명사들은 획정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획정된 논항은 자신을 요구하는 술어에 도달점을 전제하는 사행, 즉 [완수]의 의미를 부과하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논항의 획적성은 문장이 완결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이러한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은 un, deux, trois와 같은 수 한정사와 같은 부정관사들에 의해 표상된다.

목적어 논항이 비획정성을 나타내는 복수 부정관사와 결합하는 경우 술어 명사는 도달점을 전제하지 못 하게 된다. 이 때 복수 부정관사와 결합하는 술어 명사는 <faire du N>[53] 구조에 나타나 직업, 습관, 반복과 같은 상태만을 지칭하게 된다.

---

[52] *L'argument interne d'un verbe est non délimité s'il prend la forme d'un pluriel indéfini au contraire s'il prend la forme d'un singulier ou d'un pluriel défini alors il est délimité et peut conférer au SV sa télicité.* (Haas 2009 : 216)

[53] Heyd & Knittel(2009)은 <faire du N>에 출현하는 술어 명사는 <pratiquer le N>에도 출현하며 두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64) a. Pierre a fait de la construction de maisons écologiques (*en dix ans + pendant dix ans)
b. Pierre a pratiqué la construction de maisons écologiques (*en dix ans + pendant dix ans)
c. La construction de cette maison écologique a duré un an
d. *La construction de maisons écologiques a duré dix ans
(Haas 2009 : 240)

(64)에서 볼 수 있듯이 [완수]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 construction의 목적어 논항 'maison écologique'가 복수 부정관사로 나타나게 되면 이 때 술어 명사는 <en x temps>과 결합하지 못하고 <pendant x temps>과만 결합한다.

3.2.3.2. 목적어 논항 획정성과 완결상

다음은 술어 명사의 목적어 논항이 수 한정사에 의해 획정된 경우를 보여준다.

(65) a. Le gouvernement a procédé à la suppression **de 50,000 emplois publics** en cinq ans.
b. Ou encore Sylvain, également coach, qui accomplira en septembre prochain une course **de 1,000 km** en 10 jours entre Gaspé et Montréal. (liberation.fr)

(65a)는 [완수]에 속하는 술어 명사 suppression의 목적어 논항 'emploi'가 수 한정사를 통해 획정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65b)는 [활동]으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 course가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 'kilomètre'가 수 한정사로 획정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때 (65) 문장들은 이러한 획정된 논항으로 인해 <en x temps>과 결합하는데, (65a)는 [완수]로 분류되는 술어 명사의 의미를 실현한 것이고 (65b)는 [활동]이 도달점을 부여받아 [완수] 의미를 부과받은 것이다.

사실 (66)의 문장들은 모두 완결상 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54]에 나타날 수 있다.

[54] 순차 해석 문맥에 대해서는 2.2. 참조.

(66) a. Le gouvernement a procédé à la suppression de 50,000 emplois publics en cinq ans **et** il a procédé à la création de 10,000 emplois privés.
b. Le gouvernement a procédé à la creation de 10,000 emplois privés **après** avoir procédé à la suppression de 50,000 emplois publics.
c. Sylvain accomplira une course de 1,000km en 10 jours **et** Jean-Pierre accomplira une course de 500 km en une semaine.
d. Sylvain accomplira une course de 1,000km en 10 jours **avant que** Jean-Pierre aura accomplira une course de 500km en une semaine.

3.2.4. 술어 명사 구문의 시제

술어 명사 구문의 시제 역시 해당 구문의 완결상 해석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시제는 문법 자질을 통해 문장이 표상하는 사건을 시간에 등재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어떤 전개 양상을 보이는지를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문장이 표상하는 사행의 개별화를 돕는 과거, 미래 시제가 완결상 결정 요소에 해당한다.

Giorgi & Pianesi(2001)에 따르면 복합 과거와 같은 완료 시제는 언제나 끝난 사건(terminated event)과 결합한다. 이와 달리 반과거와 같은 미완료 시제는 끝난 사건 혹은 끝나지 않은 사건 모두와 결합할 수 있다.

(67) a. Tomorrow morning Mario will eat an apple. (*At three pm he will still be eating it)
b. This morning Mario pushed (반과거)[55] the cart, and he is still pushing it. (Giorgi & Pianesi 2001 : 22)

(67a)는 술어 eat an apple이 완료 시제에 해당하는 단순 미래 시제와 결합하여 미래에 사과를 먹는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기술하고

[55] 이는 Giorgi & Pianesi(2001)가 반과거와 단순 과거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이탈리아어 예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어에서는 어미를 통해 반과거와 복합 과거를 분류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과거 어미 -ed 를 통해 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저자가 괄호로 해당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적어놓은 것이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순차적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사건은 다시 일어나거나 진행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하는 미래 진행상 시제가 결합한 eat an apple과 함께 나타날 수 없다. 반면 예시 (67b)과 같이 진행 의미를 나타내는 반과거 시제와 결합하며 끝나지 않은 사건을 지칭하는 경우 후행 문맥을 통해 동일 사건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

(68) ?This morning Mario pushed (단순 과거)[56] the cart, and he is still pushing it (Ibid.)

(68)는 (67a)와 반대로 끝난 사건과 결합하는 시제가 출현할 때 두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설령 그것이 도달점이 없는 술어가 구성하는 문장이라고 해도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사건이 필요하다.[57]

이는 시제가 사건을 시간에 기입하는 기능뿐 아니라 사건의 시간적 진행, 종료를 드러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이들은 사건을 지칭할 수 있는 술어에서 끝난 사건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제와 결합할 때, 특히 진행상을 제외한 복합 과거, 단순 과거, 전미래 혹은 단순 미래 등과 같은 시제들과 결합할 때 완료상이 나타난다. 이는 프랑스어 술어 명사 구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69) a. Il procédera à la construction d'une piscine la semaine prochaine. (*La semaine d'après, il sera toujours en train de procéder à sa construction.)
b. Il procédait à la construction de cette piscine. Il est toujours en train de procéder à sa construction.

(69a)는 선행 문장에서 수영장을 짓는 사건이 단순 미래로 실현되어 미래에서 종료될 사건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후행 문장에서 미래에 종료될 사건을 나타낸 술어가 다시 진행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후행 문장은 비문이 된다. 반면 (69b)는 수영장을 짓는 사건이 반과거로 쓰여 도달점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며, 따라서 후행 문장에서 진행상과 결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

[56] 각주 64 참조.

[57] "… requires two different events: a terminated event making the first clause true, and a non-terminated one, which is going on at the utterance time." (Giorgi & Pianesi 2001 : 22).

이 때 우리는 선행 문맥에서 사건이 끝난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진행, 반복되지 못한다는 점뿐 아니라 후행 문맥이 해석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제가 시간을 통해 사건을 개별화 시켜주며 이것이 완결상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완료상은 Comrie (1976 : 3-5), Mourelatos(1978) 및 Deparetere (1995 : 4), Declerk (2007 : 53) 등에서 연구되어 왔다. Vendler(1957)의 사분법에 비춰본다면 복합 과거와 같은 시제는 어느 문장과도 결합할 수 있지만 종결상을 가진 술어 명사나 관사를 통해 개체화되는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문장과 결합할 때만 개별 사건을 나타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제는 완결상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2.5. 상 기능동사

상 기능동사는, 엄밀히 말해, 자신이 속하는 문장의 완결상 해석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말하기 어렵다. 상 기능동사는 자신이 속한 문장의 상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문장 의미의 핵인 술어 명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Gross(1996)에 따르면 술어 명사와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는 술어 명사의 본원적 상(aspect intrinsèque)에 따라 결정된다.

(70) a. J'ai donné à Luc l'autorisation de sortir
b. J'ai (*entamé + *terminé + *atteint) l'autorisation de sortir
(Gross 1996 : 72)

순간상을 가진 술어 명사 autorisation은 시작, 종결을 나타내는 상 기능동사와 결합하지 못 한다. Gross는 이것이 술어 명사가 가진 본원적 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 기능동사는 술어 명사와 여러 문장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성하는 문장 전체의 상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는 해준다.

(71) a. Ils ont (lancé + poursuivi + terminé) la construction d'un four unique pour cuire les pièces en terre.

b. Les membres de l'armée de l'air américaine ont terminé la réparation de la piste d'aviation (lepoint.fr)

(72) a. Ils ont (entamé + poursuivi + terminé) le voyage en France.
b. Le skater caennais Romain Bessière a terminé son voyage (ouest-france.fr)

예컨데 (71), (72)에서처럼 술어 명사가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기능동사 모두와 결합하면 술어 명사 구문은 [완수]이거나 [활동]의 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동]이나 [완수]에 속하는 술어 명사가 표상하는 사행은 일정한 지속을 갖기에 그 사행을 시작, 중간, 끝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종료에 속하는 술어 명사가 핵이 되는 완결상 문장의 경우에는 사행 자체가 지속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73a)와 같이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기능동사들과의 결합이 어렵다. 대신 (73b)와 같이 술어 명사에 고유한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순간성을 드러낼 수는 있다.

(73) a. Le premier président socialiste de la Ve République a (fait + *entamé + *poursuivi + *terminé) son entrée à 9 heures 30.
b. Le premier président socialiste de la Ve République a (pris + lancé) le départ pour l'Allemagne.

기존 연구에서는 동태성을 가지고 종결상을 가진 술어 명사들이 종료상을 나타내는 기능동사와 결합한다고 알려져 왔다.[58]

(74) a. Pierre a fini la réparation de sa voiture
b. Pierre a fini la lecture de ce livre long et ennuyeux (Haas 2009 : 139)

기능동사를 수식하는 finir를 술어 명사와 결합하는 terminer로 교체해도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59]

---

[58] Haas (2009 : 132-139) 참조.

[59] Gross(1996)를 따라서 우리는 상 기능 동사의 범주에 commencer, finir와 같이 기능 동사를 수식하는 상 표현 동사는 상 기능 동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a. Il a fini (de réaliser) la construction de cette église
b. Il a terminé (*de réaliser) la construction de cette église

(75) a. Pierre a terminé la réparation de sa voiture.
b. Pierre a terminé la lecture de ce livre long et ennuyeux.

한편 Gross(1996)는 종료상 기능동사가 술어의 종결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행이 (전제된 혹은 주어진) 도달점을 지칭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Gross(1996)가 제시한 종료상 기능동사와 결합하는 술어 명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76) a. Luc a terminé (?un + le + son) travail
b. Luc a suspendu (?des + les) hostilités contre ses voisins[60]

위 술어는 활동 술어 명사에 해당하는 travail와 상태 술어 명사에 해당하는 hostilité가 구성하는 문장으로 종결상이 없는 술어 명사들이다. 이처럼 종결상을 가진 술어 명사 외에도 관사를 통해 사행에 도달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종료를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동상, 종료상 기능동사는 종결상을 가진 술어 명사가 이루는 구문들과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개체화되어 획정된 사행과도 결합한다.

(77) a. Pierre a (entamé + terminé) la discussion de deux heures avec son supérieur.
b. … a (entamé + terminé) la construction de la cathédrale.

결국 종결상을 가진 완수 술어 명사와 사건의 시간을 한정 짓고 비한정성을 통해 개체화될 수 있는 활동 술어 명사들이 기동상, 종료상 기능동사와 결합한다는 점은 완결상이 종결상과 완료상을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60] Gross (1996 : 65-66)는 종료상 기능 동사가 단수 부정관사와 결합할 때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종료상이 이미 주어진 사건의 특정 부분을 지칭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이 전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술어 명사 구문과 완결상 요소들의 결합 양상

여기서는 앞에서 밝힌 완결상 결정 요소들이 문장 내에 출현하는 방식에 대해 밝힌다. 즉, 이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완결상 해석을 야기하는지를 보인다. 이를 위해 술어 명사가 속하는 상 유형을 중심으로 각 유형에 대해 완결상 해석 결정 요소들의 결합 양상을 보인다.

4.1. 술어 명사가 [완수]인 경우

술어 명사의 사행이 [완수] 유형에 속할 때 그것이 구성하는 구문이 완결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총 세 가지로 나뉜다. [완수] 술어 명사가 준한정성을 가지는 경우, 준한정성을 갖는 술어 명사가 획정성을 갖는 경우, [완수] 술어 명사가 비한정성을 갖는 경우가 그것이다.

4.1.1. ACC_QD.N_{pred}_$arg_{.obj.dél1}$ 유형[61]

이 유형은 준한정성을 갖는 [완수] 술어 명사가 획정성을 갖는 목적어 논항을 취하는 경우이다.

준한정성이란 한정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정관사가 나타나는 등 한정에 준하는 행태를 보이는 성질이다. 다시 말해 한정성과 같이 문맥상 언급된 것, 다시 말해 의미가 개체화되고 특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세 정관사(défini faible)라 불리는 정관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준한정성을 갖는다고 말한다.[62]

이렇게 준한정성을 가지는 [완수] 술어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에는 이외에도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 고유한 시제 그리고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등이 완결상 해석을 강화해준다.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은

---

[61] 'ACC'는 [완수], 'QD'는 준한정성(quasi-définitude), 'Npred'는 술어 명사(nom prédicatif), 'arg.obj'는 직접 목적어 논항(argument d'objet direct), 'dél'은 획정(délimité)의 약어이다.

[62] 약세 정관사는 단수 정관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cf. 3.2.2.1.) 약세 정관사는 반드시 단수로만 나타나며, 약세 정관사가 나타나는 자리에는 다른 관사가 출현할 수 없다.

목적어 논항 명사가 개체화되어 가산성을 가지는 성질을 말하며, 즉 수 한정사가 이에 해당한다. 시제의 경우 시간적인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순 과거나 미래 혹은 복합 과거나 전미래 등이 완결상 해석을 강화해준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63]

(78) a. Claude Costy a également réalisé la construction d'une école publique maternelle à Douvaine en 1976. (franceinfo.fr)
b. Entre 1889 et 1893, il fut donc procédé à la construction d'une nouvelle gare à l'ouest de l'ancien bâtiment (lanouvellerepublique.fr)
c. Vendée habitat réalisera la construction de neuf logements locatifs, rue Ferry Wilczek, sur un terrain de 2,490m² (ouestfrance.fr)
d. La société procédera à la construction d'un deuxième bâtiment sur le site de La Châtre (franceinfo.fr)
e. De son côté, Facebook avait procédé à la rédaction d'un nouveau prospectus d'opération (lesechos.fr)
f. Cette nouvelle ligne de production réalisera l'assemblage de quelque 50 000 unités entièrement conçues dans l'usine finistérienne. (ouest-france.fr)

(78)은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에 따르면 모두 완결상 해석을 갖기 때문에 완결상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79) a. Vendée habitat réalisera la construction de neuf logements locatifs et elle réalisera la construction de dix-huit logements résidentiels.
b. Vendée habitat réalisera la construction de neuf logements locatifs avant de réaliser la construction de dix-huit logements résidentiels.

(80) a. Facebook a procédé à la rédaction d'un nouveau prospectus d'opération et il l'a détruit à l'insu des internautes.
b. Facebook a procédé à la rédaction d'un nouveau prospectus d'opération avant de l'avoir détruit à l'insu des internautes.

---

[63] 4장에서 사용하는 예문들은 Google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뉴스란에서 프랑스 도메인으로 한정하여(site :.fr) 검색한 결과에서 나온 예문들을 사용하였다.

(81) a. Cette nouvelle ligne de production réalisera l'assemblage de quelque 50,000 unités et elle réalisera l'assemblage de 45,000 unités de plus sur commande.
b. Cette nouvelle ligne de production l'assemblage de 45,000 unités sur commande après avoir réalisé l'assemblage de quelque 50,000 unités.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술어 명사 한정성	준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획정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표2. <ACC_QD.N_{pred}_$arg_{.obj.dél1}$ 유형 특성>

4.1.2. ACC_QD.N_{pred}_$arg_{.obj.dél2}$ 유형

이 유형도 앞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준한정성을 갖는 [완수] 술어 명사가 획정성을 갖는 목적어 논항을 취하는 경우이다. 단, 이 유형은 술어 명사의 준한정성이 약세 정관사가 아닌 소유 한정사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 소유 한정사는 목적어 논항 전체를 지칭한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

(82) a. la Corée du Nord effectuait des travaux finaux à l'intérieur du réacteur, **après avoir terminé sa construction** (lemonde.fr)
b. Technicien au bureau d'études, il connaît déjà son Mini sur le bout des doigts pour avoir travaillé à sa conception et **avoir mené sa construction de A à Z.** (letelegramme.fr)
c. Après avoir trouvé le lieu précis de la fuite, les agents de la SAUR, **ont procédé à sa réparation** en fin de matinée. (charentelibre.fr)

(82)의 모든 문장은 완결상 해석을 갖기 때문에 완결상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83) a. Il a beaucoup travaillé à la conception du Mini **et** il a mené sa construction de A à Z.
b. Il a beaucoup travaillé à la conception du Mini **avant** d'avoir mené sa construction de A à Z.

(82a)와 (82c)의 경우에는 이미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자.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술어 명사 한정성	준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획정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표3. <ACC_QD.N_{pred}_$arg_{.obj.dél2}$ 유형 특성>

4.1.3. ACC_ID.N_{pred} 유형[64]

이 유형은 비한정성을 갖는 [완수]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비한정성이란 대상이 문맥상 선행 요소를 전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이 대상 자체는 개체적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cf. 3.2.2.1.) 따라서 비한정성을 지닌 술어 명사들은 단수 혹은 복수로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가산성(comptabilité)을 갖고, 이를 통해 완료상 해석을 가진다.

이렇게 비한정성을 가지는 [완수] 술어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에서도 술어 외에도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 시제 그리고 상 기능동사 결합

[64] 'ID'는 비한정성(indéfinitude)의 약어이다.

가능성이 완결상 해석을 강화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 술어 명사는 동사성이 사라져 통사적인 의미[65]에서 논항을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관사를 통해 이미 사행이 개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이 완결상 해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

(84) a. L'assemblée a également procédé à deux modifications en son sein (sudouest.fr)
b. J'ai fait une présentation orale de onze minutes sur la lutte pour le pouvoir (hitek.fr)
c. Nous avons déjà réalisé trois réparations (parisnormandie.fr)
d. Dans le cadre du programme Habiter Mieux, avec 52 266 logements rénovés, l'Anah réalise 28% de rénovations énergétiques de plus que l'année passée (40 726 en 2016). (lemoniteur.fr)

(84)의 모든 문장들은 완결상 해석을 갖기 때문에 완결상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85) a. J'ai fait une présentation orale de onze minutes sur la lutte pour le pouvoir et Paul a fait une présentation sur la lutte contre la lutte pour l'argent.
b. J'ai fait une présentation sur la lutte pour le pouvoir avant que Paul ait fait une présentation sur la lutte pour l'argent.

(86) a. Nous avons réalisé trois réparations et nous nous somme reposés pendant 30 minutes.
b. Nous nous sommes reposés pendant 30 minutes après avoir réalisé trois réparations.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65] Milner(1982), Grimshaw(1990), Haas(2009) 참조. [완수] 첫번째와 두번째 유형과 달리 목적어 논항의 소유 한정사화가 불가능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 술어 명사 한정성	비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무관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표4. <ACC_ID.N_{pred} 유형 특성>

[완수]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문장에서 완결상 해석이 나타나는 세 양상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완결상 결정 요소	ACC_QD.N_{pred}_arg.obj.dél1	ACC_QD.N_{pred}_arg.obj.dél2	ACC_ID.N_{pred}
술어 명사 비한정성	X	X	O
목적어 논항 획정성	O	O	X
결합 가능 상 기능동사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표5. <완결상 결정 요소의 결합 양상 : ACC 유형>

4.2. 술어 명사가 [종료]인 경우

술어 명사의 사행이 [종료] 유형에 속할 때 그것이 구성하는 구문이 완결상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는 총 네 가지로 나뉜다. 즉, 기본 종료로 분류되는 [종료] 술어 명사가 준한정성을 가지는 경우와 비한정성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우측 종료로 분류되는 [종료] 술어 명사가

준한정성을 갖는 경우와 비한정성을 가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4.2.1. ACH_p_QD.N_{pred}_$arg_{.obj.dél}$ 유형[66]

이 유형은 준한정성을 갖는 기본 [종료] 술어 명사[67]가 획정성을 갖는 목적어 논항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준한정성은 약세 정관사 또는 소유 한정사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

(87) a. Pierre a fait une entrée tonitruante[68]
b. Le commissaire de police a procédé à l'inculpation de Pierre (Haas & Jugnet 2013 : 14)
c. Les trois principaux opérateurs en Corée du Sud (SK Telecom, KT et LG U) ont donné la confirmation de 300,000 précommandes (worldissmall.fr)
d. le premier président socialiste de la Ve République fait son entrée à 9 heures 30. (sudouest.fr)[69]

(87)의 모든 문장은 완결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완결상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88) a. Pierre a fait une entrée tonitruante au stade **et** il a déclaré l'ouverture de la Coupe du monde.
b. Il a déclaré l'ouverture de la Coupe du monde **après** avoir fait une entrée tonitruante au stade.

---

[66] 'ACH_p'는 기본 종료(achèvement pur)의 준말이다.

[67] 기본 [종료]란 종료의 특성인 도달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달점 이전의 준비 구간과 도달점 이후의 결과 상태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 유형의 [종료]를 가리킨다. (cf. 3.2.1.3.)

[68] 준한정성을 갖는 술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을 때 술어 명사의 관사는 단수 정관사에서 단수 부정관사로 변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 나타나는 부정관사로, 개체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정관사 une 과 다르다.

[69] 기본 [종료]와 우측 [종료]에서 이동과 관련된 술어들은 대체로 장소 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 주어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목적어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비록 통사적으로는 주어 위치에 나타나지만 의미적으로 이는 목적어 논항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문 중에 이러한 이동과 관련된 술어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을 포함시켰다.

(89) a. Le commissaire de police a procédé à l'inculpation de Pierre **et** il a demandé un mandat d'arrêt.
b. Le commissaire de police a demandé un mandat d'arrêt contre Pierre **après** avoir procédé à l'inculpation de Pierre.

(90) a. Les trois principaux opérateurs en Corée du Sud ont donné la confirmation de 300,000 précommandes pour le nouveau modèle **et** ils ont annoncé l'annulation de sa sortie.
b. Ils ont annoncé l'annulation de la sortie du nouveau modèle **après** avoir donné la confirmation de 300,000 précommandes.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술어 명사 한정성	준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획정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순간상

표6. <ACH_p_QD.N_{pred}_$arg_{.obj.dél}$ 유형 특성>

4.2.2. ACHp_ID.N_{pred} 유형

이 유형은 비한정성을 갖는 기본 [종료]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비한정성을 지닌 술어 명사들은 단수 혹은 복수로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가산성(comptabilité)을 갖고, 이를 통해 완료상 해석을 가진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

(91) a. 60% des entrées illégales sur le territoire européen ont eu lieu en 2014 par la Méditerranée centrale, c'est-à-dire en Italie et Malte (lemonde.fr)

b. le salarié qui est à l'origine du premier retour a effectué deux autres remboursements pour des produits (lamontagne.fr)
c. De premières inculpations ont eu lieu lundi dans l'affaire des ingérences russes présumées dans la dernière élection présidentielle américaine (europe1.fr)

(91)의 문장은 모두 완결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완결상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92) a. 60% des entrées illégales sur le territoire européen ont eu lieu en 2014 par la Méditerranée centrale **et** l'Italie a adopté une loi visant à réguler le flux de migrants.
b. L'Italie a adopté une loi visant à réguler le flux de migrants **après** qu'ont eu lieu 60 % des entrées illégales sur le territoire européen par la Méditerranée centrale.

(93) a. Le magasin a récupéré les produits **et** il a procédé à quelques remboursements.
b. Le magasin a récupéré les produits **avant** d'avoir procédé à quelques remboursements.

(94) a. De premières inculpations ont eu lieu lundi dans l'affaire des ingérences russes présumées dans la dernière élection présidentielle américaine **et** Donald Trump a réagi à ce sujet sur Twitter.
b. Donald Trump a réagi sur Twitter **après** qu'il y a eu de premières inculpations dans l'affaire des ingérences russes présumées dans la dernière élection présidentielle américaine.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술어 명사 한정성	비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무관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순간상

표7. <ACH_p_$ID.N_{pred}$ 유형 특성>

4.2.3. ACH_{d}_QD.N_{pred}_$arg_{.obj.dél}$ 유형[70]

이 유형은 준한정성을 갖는 우측 [종료] 술어 명사[71]가 획정성을 갖는 목적어 논항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준한정성은 약세 정관사 또는 소유 한정사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

(95) a. les officiels ukrainiens accusaient **la Russie** d'**avoir procédé à l'élimination du journaliste** (Franceinfo.fr)
b. Le jeune écrivain franco-marocain cette année couronnée par le Goncourt a fait son arrivée au restaurant Drouant. (franceinfo.fr)
c. Pierre a fait l'acquisition d'une maison en deux ans. (Haas & Jugnet 2013 : 15)

(95)의 문장은 모두 완결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완결상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96) a. La Russie a fait de nombreuses investigations **et** elle a procédé à l'élimination du journaliste.
b. La Russie a procédé à l'élimination du journaliste **après** avoir fait de nombreuses investigations.

(97) a. Le jeune écrivain franco-marocain a fait son arrivée au restaurant Drouant et les journalistes lui ont posé beaucoup de questions.
b. Le jeune écrivain franco-marocain a fait son arrivée au restaurant avant que les journalistes lui aient posé beaucoup de questions.

(98) a. Pierre a fait l'acquisition d'une maison en deux ans **et** Marie, sa femme, a fait l'acquisition d'une voiture en un an.
b. Pierre a fait l'acquisition d'une maison en deux ans **avant que** Marie, sa femme, ait fait l'acquisition d'une voiture en un an.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70] 'ACHd'는 우측 종료(achèvement droit)의 준말이다.

[71] 우측 [종료]란 종료의 특성인 도달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달점 이전의 준비 구간을 내포하는 유형의 [종료]를 가리킨다. (cf. 3.2.1.3.)

㉠ 술어 명사 한정성	준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무관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순간상

표8. <ACHd_QD.Npred_arg$_{.obj.dél}$ 유형 특성>

4.2.4. ACH$_d$_ID.N$_{pred}$ 유형

이 유형은 비한정성을 갖는 우측 [종료]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

(99) a. Une arrivée a bien eu lieu à 14 h 34 en gare de Montpellier (midilibre.fr)
b. En 2016, Eurofins avait réalisé 27 acquisitions (lefigaro.fr)
c. les policiers ont procédé à six arrestations (lunion.fr)

(99)의 문장은 모두 완결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완결상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100) a. Une arrivée a bien eu lieu en gare de Saint-Lazare à 14 h 34 et deux départs ont eu lieu.
b. Une arrivée a bien eu lieu avant (qu'ont eu lieu) deux départs.

(101) a. Eurofins a réalisé 27 acquisitions et elle s'est endettée de 100,000 euros.
b. Eurofin s'est endettée de 100,000 euros après avoir réalisé 27 acquisitions.

(102) a. Les policiers ont procédé à six arrestations et ont obtenu beaucoup d'informations.
b. Ils ont obtenu beaucoup d'informations après avoir procédé à six arrestations.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술어 명사 한정성	비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무관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순간상

표9. <ACH_d_ID.N_{pred} 유형 특성>

[종료] 술어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이 완결상 해석을 받는 세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완결상 결정 요인	ACH_p_QD.$_{Npred}$_arg.obj.dél	ACH_p_ID.N_{pred}	ACH_d_QD.N_{pred}_arg.obj.dél	ACH_d_ID.N_{pred}
술어 명사 비한정성	X	O	X	O
목적어 논항 획정성	O	X	O	X
상 기능동사 결합 가능성	X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표10. <완결상 결정 요소의 결합 양상 - ACH 유형>

4.3. 술어 명사가 [활동]인 경우

술어 명사의 사행이 [활동] 유형에 속할 때 그것이 구성하는 구문이 완결상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즉, [활동] 술어 명사가 준한정성을 가지는 경우, [활동] 술어 명사가 비한정성을 갖는 경우가 그것이다.

4.3.1. ACT_QD.N_{pred}_$arg_{.obj}$ 유형[72]

이 유형은 준한정성을 갖는 [활동] 술어 명사가 목적어 논항을 가지는 경우이다. [완수]나 [종료]와 달리 술어 명사에 종결상이 없기 때문에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이 완결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

(103) a. elle a procédé à la dégustation de 13.500 vins (20minutes.fr)
b. La dégustation a duré un après-midi entier. (lefigaro.fr)
c. Makao a assuré la protection du candidat Macron durant toute la campagne présidentielle. (lexpress.fr)
d. La protection contre ces cancers a duré au moins 30 ans après l'arrêt de la pilule (ladepeche.fr)

(103)의 문장은 모두 완결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완결상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104) a. Elle a procédé à la dégustation de 13.500 vins **et** elle a compris ce qui est essentiel dans un vin.
b. Elle a compris ce qui est essentiel dans un vin **après** avoir procédé à la dégustation de 13,500 vins.

(105) a. La dégustation des baguettes a duré un après-midi entier **et** le jury a donné ses appréciations.
b. La dégustation des baguettes a duré un après-midi entier **avant que** le jury a donné ses appréciations.

(106) a. Makao a assuré la protection du candidat Macron durant toute la campagne présidentielle **et** il s'est présenté dans une émission de téléréalité.

---

[72] 'ACT'는 [활동](activité)의 약어이다.

b. Makao s'est présenté dans une émission de téléréalité **après** avoir assuré la prot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ndant six ans.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술어 명사 한정성	준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무관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표11. <ACT_QD.N_{pred}_$arg_{.obj}$ 유형 특성>

4.3.2. ACT_ID.N_{pred} 유형

이 유형은 비한정성을 갖는 [활동] 술어 명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비한정성은 대표적으로 수 한정사를 통해 표상된다.

다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술어 명사 구문들이다.

(107) a. À cette occasion, une dégustation des confitures s'est déroulée sur la terrasse du château (sudouest.fr)
b. Sa protection durera plus de 10 ans. (lepetitjournal.fr)
c. Le premier ministre israélien, Benjamin Netanyahou, a tenu une réunion de quatre heures avec plusieurs de ses ministres à Tel Aviv (lemonde.fr)
d. Vendredi 29 juin, la chambre de commerce américaine de Chine a tenu une réunion privée (lemonde.fr)
e. Une discussion de deux heures a eu lieu dimanche entre le staff et les joueurs (leprogres.fr)

(107)의 문장은 모두 완결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완결상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순차 해석 문맥에 나타날 수 있다.

(108) a. Une dégustation des confitures s'est déroulée sur la terrasse du château et les participants ont rangé tous emsemble la terrasse.
b. Une dégustation des confitures s'est déroulée avant que les participants aient rangé tous ensemble la terrasse.

(109) a. Sa protection contre le virus durera plus de 10 ans et le vacciné sera totalement immune.
b. Sa protection contre le virus durera plus de 10 ans avant que le vacciné soit totalement immune.

(110) a. Le premier ministre israélien a tenu une réunion de quatre heures avec plusieurs de ses ministres à Tel Aviv et il a pris le départ pour les États-Unis.
b. Le premier ministre israélien a pris le départ pour les États-Unis après avoir tenu une réunion de quatre heures avec plusieurs de ses ministres à Tel Aviv.

(111) a. Une discussion de deux heures a eu lieu dimanche entre le staff et les joueurs et ils ont changé de stratégie
b. Une discussion de deux heures entre le staff et les joueurs a eu lieu avant qu'ils aient changé de stratégie.

이 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술어 명사 한정성	비한정성
㉡ 목적어 논항 획정성	무관
㉢ 결합 가능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 결합 가능한 상 기능동사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표12. <ACT_ID.N_{pred} 유형 특성>

[활동] 술어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의 완결상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완결상 결정 요인	ACT_QD.N_{pred}_$arg_{.obj}$	ACT_ID.N_{pred}
술어 명사 비한정성	X	O
목적어 논항 획정성	X	
완결상 상 기능동사	기동상, 지속상, 종료상 기능동사	
시제	단순 과거, 단순 미래, 복합 과거, 전미래	

표13. <완결상 결정 요소의 결합 양상 : ACT 유형>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어 술어 명사 구문에서 완결상 해석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밝히고 이들의 결합 양상을 기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 완결상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상 선행 연구의 쟁점을 검토하고 상이 문장 층위에서 동사와 같은 술어뿐만 아니라 술어와 결합하는 논항의 획정성, 도달점을 부여하는 방향 전치사, 부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결국 문장 내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을 결정해야 함을 보였다.

또한 완결상이 어휘 층위에서의 종결상과 완료상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보였다. 그 다음 술어 명사 구문의 완결상 해석을 야기하는데 관여하는 여러 요소들을 살폈다. 술어 명사 구문에서 완결상 해석에는 술어 명사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도 술어 명사의 비한정성, 목적어 논항의 획정성, 시제 그리고 상 기능동사가 술어 명사 구문 완결상 해석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술어 명사 구문이 완결상 해석을 갖는 다양한 조건들을 밝히고 이를 유형화하였다. 부류 별로 완수에는 총 3개의 양상을, 종료에서는 총 4개의 양상을 그리고 활동에서는 3개의 양상을 구분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완결상에 기여하는 요소들과 그 결합 양상을 기술하기는 했으나 완결상 발현 기여 요소들 간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세분화된 후속 연구가 보완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또한 술어 명사를 분류할 때 [종료] 하위 부류 중에서 다른 행태를 보이는 술어 명사 부류들이 어떻게 완결상 해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논문은 상이 문장 층위에서 결정되는 의미임을 보이고 기존에 별개로 연구되던 종결상과 완료상을 완결상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상 연구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Anscombre, J. C. (2005). Les deux périphrases nominales un N en train/un N en cours: essai de caractérisation sémantique. *Bat-Zeev Shyldkrot, H. & Le Querler, N. (éds). Les périphrases verbales, Amsterdam: John Benjamins*, 103-117.

Arrivé, M. (1986). *La grammaire d'aujourd'hui. Guide alphabétique de linguistique française*(p. 720). Flammarion.

Asnès, M. (2008). Quantification d'objets et d'événements: analyse contrastive des quantifieurs nominaux et des flexions verbales. *Langages*, (1), 82-91.

Barque, L., Marın, R., Jugnet, A., & Huyghe, R. (2009). Two types of deverbal activity nouns in French. *Invited Talks.*

Beauseroy, D. (2007). Quelques remarques sur les nominalisations.

Beauseroy, D., Jacquey, E., & Knittel, M. L. (2011). Des hypothèses, des tests et des données: les noms événementiels en corpus. *Corpus*, (10), 219-238.

Berthonneau, A. M. (1991). "Pendant et pour", variations sur la durée et donation de la référence. *Langue française*, (91), 102-124.

Borillo, A. (1991). De la nature compositionnelle de l'aspect.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philologie*, *29*, 97-102.

Caudal, P. (2007). Aspect, Sémanticlopédie, http://www.semantique-gdr.net/dico/index.php/Aspect

Comrie, B. (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seriu, E. (1980). *Aspect verbal ou aspects verbaux ?: quelques questions de théorie et de méthode*. Librarie Klincksieck.

Declerck, R. (1979). Aspect and the bounded/unbounded (telic/atelic) distinction. Linguistics, 17(9-10), 761-794.

Declerck, R. (2007). Distinguishing between the aspectual categories '(a)telic', '(im)perfective' and '(non)bounded'. *Kans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9*.

Depraetere, I. (1995). On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between (un)boundedness and (a)telicit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8*(1), 1-19.

Dowty, D. R.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Q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Dordrecht, Holland: D. *Dordrecht: Reidel*.

Dowty, D. R. (1986). The effects of aspectual class on the temporal structure of discourse: semantics or pragmatic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1), 37-61.

Filip, H. (2011). Aspectual class and Aktionsart.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De Gruyter Mouton, 1186-1217.

Flaux, N., & Van de Velde, D. (2000). *Les noms en français: esquisse de classement*. Editions Ophrys.

Fuchs, C. (1991). *Les typologies de procès*. Klincksieck.

Fuchs, C., Gosselin, L., & Victorri, B. (1991). Polysémie, glissements de sens et calcul des types de procè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Philologie*, *29*, 137-169.

Giorgi, A., & Pianesi, F. (2000). Ways of terminating.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0.1, 2000, pp. 17-88*.

Godard, D. & Jayez, J. (1996). Types nominaux et anaphores: le cas des objets et des événements. *Anaphores temporelles et (in-) cohérence*, *1*, 41.

Gosselin, L., & François, J. (1991). Les typologies de procès: des verbes aux prédications. *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philologie*, *29*, 19-86.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MIT Press.

Gross, G., & Kiefer, F. (1995). La structure événementielle des substantifs. *Folia linguistica*, *29*(1-2), 43-66.

Gross, G. (1996). Prédicats nominaux et compatibilité aspectuelle. *Langages*, *30*(121), 54-72.

Haas, P. (2009). *Comment l'aspect vient aux noms ?: les propriétés aspectuelles des noms à l'épreuve des restrictions de sélection imposées par certaines prépositions*, Thèse de doctorat.

Haas, P., & Huyghe, R. (2010). Les propriétés aspectuelles des noms d'activités. *Cahiers Chronos*, *21*, 103-118.

Haas, P. (2011). L'expression de l'aspect grammatical dans le domaine nominal: le cas de en plein Naction. Travaux de linguistique, (2), 85-107.

Haas, P., & Jugnet, A. (2013). De l'existence des prédicats d'achèvements. *Lingvisticae Investigationes*, *36*(1), 56-89.

Haas, P., Huyghe, R., & Marín, R. (2008). Du verbe au nom: calques et décalages aspectuels. In *Congrès Mondial de Linguistique Française 2008* (pp. 2051-2065).

Heyd, S., & Knittel, M. L. (2009). Les noms d'activité parmi les noms abstraits: propriétés aspectuelles, distributionnelles et interprétatives. *Lingvisticæ investigationes*, *32*(1), 124-

148.

Huyghe, R., & Marin, R. (2006). L'aspect dans le domaine nominal. *Exposé présenté lors des Journées d'Étude sur la Pluralité nominale et verbale, Paris*, 6-7.

Huyghe, R. (2011). (A)telicity and the mass-count distinction: the case of French activity nominalizations.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40), 101-126.

Huyghe, R. (2014). La sémantique des noms d'action: quelques repères. *Cahiers de lexicologie*.

Jackendoff, R. (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 quantification in English.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14*(2), 305-354.

Jayez, J. (1996). Référence et aspectualité. Le problème des verbes dits «aspectuels». *Cahiers de linguistique française*, *18*, 275-298.

Kiefer, F. (1998). Les substantifs déverbaux événementiels. *Langages*, 56-63.

Knittel, M. L. (2011). French event nominals and number-inflection. *Recherches linguistiques de Vincennes*, (40), 127-148.

Knittel, M. L. (2016). A propos de l'(in)définitude des noms d'événements complexes 1. *Journal of French Language Studies*, *26*(3), 251-278.

Leeman-Bouix, D. (1994). Grammaire du verbe français des formes au sens, coll. *Fac. linguistique, Tours, Nathan*.

Lévrier, F. (1995). Les phrases de structure N0 être en X: problèmes de nominalisation et variantes aspectuelles. *Cahiers de grammaire*, (20), 65-86.

Martin, R. (1988). Temporalité et «classes de verbes». *L'information grammaticale*, *39*(1), 3-8.

Mittwoch, A. (1982). On the difference between eating and eating something: Activities versus accomplishments. *Linguistic Inquiry*, 113-122.

Milner, J. C. (1982). Ordres et raisons de langue. Seuil.

Mourelatos, A. P. (1978). Events, processes, and stat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3), 415-434.

Olsen, M. B. (1994).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lexical aspect features.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Rothstein, S. (2008). Verb classes and aspectual classification. *Structuring events: A study in the semantics of lexical aspect*, 1-35.

Rothstein, S. (2008). Telicity, atomicity and the Vendler classification of verbs. *Theoretical and Crosslinguistic Approaches to Aspect*, 43-77.

Smith, C. S.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vol. 43 of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Smith, C. S. (1999). Activities: states or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5), 479-508.

Van de Velde, D. (2006). *Grammaire des événements* (Vol. 993). Presses Univ. Septentrion.

Vendler, Z. (1957).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143-160.

Vendler, Z. (1967). Facts and events. Linguistics in philosophy, 122-146.

Verkuyl, H. J. (2005). Aspectual composition: Surveying the ingredients. In *Perspectives on aspect*, Springer,

Dordrecht. 19-39.

Vet, C. (1980). *Temps, aspects et adverbes de temps en français contemporain: essai de sémantique formelle* (Vol. 154). Droz.

Vivès, R. (1993). La prédication nominale et l'analyse par verbes supports. L'Information grammaticale, 59(1), 8-15.

Wilmet, M. (1980). Aspect grammatical, aspect sémantique, aspect lexical: un problème de limites. *La notion d'aspect*, 51-68.

Wilmet, M. (1991). L'aspect en français: essai de synthèse. *Journal of French language studies*, *1*(2), 209-222.

고영근. (2006). 동작상에 대한 이해. *한국어학*, *30*, 1-30.

박정준. (2009). 프랑스어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의미와 번역. *인문과학논총*, 28, 5-37.

이성헌. (2015). 프랑스어 이동명사의 통사ㆍ의미 속성 연구. *언어*, *40*(1), 107-134.

Abstract

L'étude sur la perfectivité du français

– autour des phrases à nom prédicatif

KWANGHAE JI

Département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a présente étude a pour but de mettre en évidence des éléments constituant la perfectivité, qui est représentée par la construction à nom prédicatif, et de décrire leurs différentes combinaisons qui conduisent à l'interprétation perfective de la phrase.

Pour ce faire, tout d'abord, nous passons en revue, de façon systématique, les études sur l'aspect et relevons nos problématiques. Et nous montrons que la perfectivité est un aspect qui comprend à la fois la télicité et l'aspect accompli/inaccompli : la télicité est déterminée par le sens lexical, tandis que l'aspect accompli/inaccompli dépend du temps grammatical.

Ensuite, nous démontrons que la perfectivité apparaît dans la construction à nom prédicatif, à travers la combinaison de divers éléments qui sont : le sens et l'aspect lexical du nom prédicatif, sa (in)définitude, la nature délimitée de l'argument d'objet direct du nom prédicatif, les temps grammaticaux et les verbes support aspectuels.

Enfin, nous montrons comment ces éléments se combinent pour représenter la perfectivité. En d'autres termes, nous montrons avec quels éléments chaque type d'aspect des noms prédicatifs se combine de façon caractéristique pour créer l'interprétation perfective. Nous obtenons comme résultat neuf combinaisons dont 3(ACC_QD.N_{pred}_$arg_{.obj.dél1}$, ACC_QD.N_{pred}_$arg_{.obj.dél2}$, ACC_ID.N_{pred}) pour [accomplissement], 4(ACH_p_QD.N_{pred}_$arg_{.obj.dél}$, ACH_p_ID.N_{pred}, ACH_d_QD.N_{pred}_$arg_{.obj.dél}$, ACH_d_ID.N_{pred}) pour [achèvement] et 2(ACT_QD.N_{pred}_$arg_{.obj}$, ACT_ID.N_{pred}) pour [activité], qui forment ladite interprétation.

Mots-clé: perfectivité, construction à nom prédicatif, accomplissement, achèvement, activité, (in)définitude

Student Number: 2014-22242